



뜨거운 결속 속에 흥겨운 라운드

제8회 동문 골프대회
37개조...1백41명 참가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리베라CC에서 제8회 서울대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단과대학(원)과 특별과정, 직능 및 지방지부동창회에서 참가한 동문 1백41명이 37개조로 나뉘어 샷건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으로 경기를 치렀다.

순위를 가리는 대표팀 단체전과 개인전은 스트로크방식, 남녀 친선팀은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메달리스트는 대표팀에서 선발했다. 대표팀 단체전 우승은 정보통신방송

정책과정(AIC)동창회팀이 차지했으며, 개인전 우승은 鄭淳泰(SPARC 20기)동문에게 돌아갔다.

남녀 친선팀에서는 서한교(대학원00-02)동문과 韓松利(치의학89-95)동문이 각각 1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3면>



지난 9월 14일 열린 제8회 서울대동문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이 경기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0월 21일 일요일에 만나요

흠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행사

△일 시: 10월 21일(일요일) 오전 9시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대회장소: 모교 노천강당 앞 버들골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 가족

△참가회비: 없음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등

△경 품: ① 승용차 ② 스쿠터
③ 기타 풍성한 선물 추첨

△문의전화: 02)702-223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장학빌딩 베리타스홀 개장식

△일 시: 10월 25일(목요일) 오후 3시

△장 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SNU 장학빌딩

△문의전화: 02)702-2233, 6730-7208

관악출추

10월 15일은 모교의 개교 기념일이다. 국립대학교로 출범한 1946년을 기준으로 하면 66주년이지만 개학 원년인 1895년부터 따지면 117주년이다.

서울대가 1백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교로 거듭나게 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林光洙총동창회장이 중심이 돼 역대 총장들과 많은 동문들이 뜻을 모아 추진해온 '서울대 뿌리 찾기'노력이 거둔 값진 결실이다.

개교 또는 개학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내외 우수 대학들의 사례, 각계 전문가들의

고증과 해석 등을 거쳐 2010년 10월 서울대 교수평의회가 법과대학의 모태가 된 한국 최초의 법관양성소가 설립된 1895년을 개학 원년으로 삼기로 의결함으로써 서울대는 역사 일천한 신생 대학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등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대학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다수 세계 유명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사는 축적이고 전통이며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한 세기가 넘는 긴 역사는 서울대, 서울대인

의 긍지와 자부심이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시대적 소명을 조명해 보게 한다. 더구나 지난 몇 년 동안 뜻 깊은 변화들이 잇따랐다.

지난 2011년 말 법인화가 성사돼 자원의 힘을 통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올해에는 웅장한 장학재단 빌딩이 완공돼 33만 서울대인의 구심점이자 재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개교 기념일을 앞두고 영국의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2012년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가 37위에 오른 것도 빛나는 성취다. 도쿄대(30위), UCLA(31위)등과 함께 30위권 반열에 올라 세계 일류대학으로 진입하는 문턱을 밟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다가.

'서울대 폐지론'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망령이 여전히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서울대와 서울대인이 자만에 빠져 안주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능한 빨리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일류대학으로 자리 잡고 국가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황당한 '반서울대 정서'를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이다.

117년 역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서울대의 미래를 고민해 본다면 더욱 뜻깊은 개교 기념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朴時龍논설위원)

서울대 117년의 단상

느리나무광장

“서울대학교는 올바른 사고와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모교 제24대 총장을 지낸 기후변화센터 李長茂이사장은 지난 7월 동창회보 인터뷰에서 ‘당신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이 말부터 꺼냈다. 총장 취임 당시 발표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 모교의 첫째 사명으로 강조한 내용이라고 했다.

李 前총장은 또 “서울대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뛰어난 인재가 배출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면서 “기대가 큰 만큼 사회적 책무도 더 커지고 있다. 모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서울대 진화론’에 방점을 찍었다. 李 前총장은 ‘서울대의 진화’에 대해 인터뷰 말미에 간곡한 어조로 “동문들에게 더 뜨거운 관심과 사랑, 후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李 前총장이 공대 학장을 맡았던 1997년 말 IMF사태를 맞아 펼친 ‘동반자 사회운동’은 실천적 ‘서울대 진화’의 사례다. 2백여 명의 실직자들에게 2년 동안 모교 공대의 2백여 개 과목을 개방하고 교육을 실시,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당시 여러 언론매체가 ‘일반인도 관악산이 아닌 관악캠퍼스로’란 제목을 달아 관심

을 모았다. 총장 재임 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교 재학생 2백여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1천여 명의 빈곤층 아이들에게 과외수업을 제공토록 한 일도 ‘서울대 장학금의 진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대 진화’ 화두는 대선 정국이 한창 진행 중인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서울대 폐지론’에 맞설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한다. 모교가 올해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에서 37위에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도, ‘서울대의 좌표와 동시에 서울대인의 역할’을 새삼 거론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학 내부 측면에서는 지난 8월 인터뷰했던 모교 李俊植연구부

‘서울대 진화론’ 본격화해야

金 永 燮

연합뉴스 홍보기획팀장
본보 논설위원



총장의 연구역량 강화 계획이 눈여겨볼 만하다. 기계항공공학부장, 연구처장 등을 역임한 李부총장은 대학 자체의 연구인프라 확충에 ‘연구부총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연구는 결국 국 장비싸움인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집중적으로 고가의 대형 공용장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모교 법인화와 관련해서도 李부총장은 급여 및 교수임용에 있어 유연성이 생김으로써 해외의 훌륭한 석학을 모교 전임교수로 초빙해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과 수익수업의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 없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연구에 투입해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서울대 법인화=서울대 진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林光洙회장 중심의 총동창회가 모교 일선 학과의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직접 나선 것도 주목된다. 총동창회는 장학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12억원을 책정, 학부·학과당 5천만원~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강의 동영상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교수당 1과목 지원비로 성과포상까지 포함해 최대 2천5백만원을 지급한다.

‘서울대 진화론’ 화두와 함께 “올바른 사고와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남을 위한 봉사는 대학과 제 개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관”이라는 李長茂 前총장의 인터뷰를 다시금 떠올려 본다.

관악시단

친구여!

林 溶 琨 (의학57 - 64)
미국 정신과 전문의

여보소 벗님네야 한 마디 말도 없이

어찌 그리 급히 홀로 가버렸소

내 이젠 누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만사 談笑에 부치겠소

會者定離라지만

언제나 변함 없이 푸근한 당신 모습

그리움이 波濤로 밀려 올 때면

이렇게도 힘이 들 줄 예전엔 몰랐었구려

보고 싶소 보고 싶구려

말 좀 하소 말 좀 해보구려

우리 언제 다시 만나자구

동문칼럼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그동안 한 번 가보려고 생각했던 중국의 大連 여행을 했다. 사실 그 많은 지역 중에 대련을 고른 것은 지금은 대련시에 편입된 旅順을 가보고 싶어 그곳을 결정해서 다녀왔다. 대련과 여순은 동북3성의 제일 남쪽이 되는 요동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 대련은 중국 제2의 무역항구이며, 동북지방(만주)의 창문이다. 또 여순은 安重根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대련과 여순을 합쳐서 한 때 旅大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냥 대련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바로 나의 여행 목적지인 旅順으로 가보고자 한다.

여순 감옥과 安重根의사: 한국의병 참모총장 安重根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해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安重根의사의 조선의 독립과 아시아 평화 를 이룩하기 위한 애국주의적 정신 즉, 大我를 위해 小我를 버린 정신은 영원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安重根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거사한 즉시 체포돼 일본 하얼빈(哈爾濱)총영사관을 거쳐 여순 감옥으로 오셨다. 安重根의사가 지내시던 독방과 고문당하시던 방, 그리고 書道를 하신 물건

들도 그대로 보존돼 있고 또 1910년 3월 26일 사형(교수형)이 집행됐는데 그 장소도 너무나 잘 보존돼 있다. 한 가지 특기할 일은 安의사 모친께서 직접 가져온 수의를 입고 교수형이 집행됐다고 해 모친의 사랑 어린 처사를 듣고 감명 받았다. 또 중국 당국의 호의로 安重根의사가 약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쓰신 많은 이름 있는 글씨가 한 방에 전시돼 있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됐다. 사실 安重根의사의 거사는 중국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孫 文 선생도 높이 평가해 좋은 글을 써서 보내주었는데 그 글도 지금까지 여순 감옥에 잘 보관돼 있다.

安重根의사의 서예 작품: 安重根의사의 명필 서예는 59품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잘 전시돼 있다. 그 중에서 安의사의 좌우명이라고 알고 있는 ‘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운

일을 볼 때에는 의리를 생각하고 위급한 일을 볼 때에는 생명을 바치다)’과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하루도 독서를 안 하면 입 속에 가시가 생긴다)’이란 글은 安의사의 높은 교양수준을 나타낸 작품이다. 이와 같이 무수한 명필이 전시돼 있어 우리가 여순 감옥에 간 중요한 이유가 됐다. 安의사가 쓰신 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형 집행 직전에 쓰신 글은 ‘爲國獻身 軍人本分(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인데 이 글은 의사님을 모신 일본인 간수 치바 도시치(千葉 十七)가 마음에 들어 써주신 글이라고 알고 있다. 일본인 간수는 이 글을 일본에 가지고 가서 평생 동북지방의 절에다 모셨다고 한다. 그 당시 여순 감옥의



劉 鐘 海
(법학50 - 54)
연세대 명예교수

난방도 안 된 추운 감방에서 사형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그런 명필의 작품을 쓰셨는지 安의사의 심리적 안정감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요동반도 여행에서 느낀 점

1) 安重根의사의 고결하고 忠正에 넘치는 애국심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 약 1백년 전 홀로 막강한 일본, 그 중에서도 제일가는 인물 伊藤博文을 사살하고 약 5개월간의 생명을 초월한 감방 생활을 하신 것을 보니 위대한 선열의 호국정신 앞에 머리가 절로 숙여진다. 내가 지금까지 安重根의사를 숭배인물로 삼은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다.

2) 나라가 약하고 국가로 존재하지 않았던 (外交上으로) 일은 참으로 비극이다. 우리나라가 1905년부터 완전히

일본의 통치를 받아온 것,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가 외교권도 없고 해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생

安重根의사 다시 알기

각을 표시할 수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니 속이 상한다. 요동반도에도 옛 고구려의 卑沙城(660m 고지)이 大連郊外에 있어 멀리서만 보고 왔다. 우리가 가슴 아픈게 생각하는 일은 국권이 없을 때 청나라가 현재 심양에서 나라를 세우는 바람에 滿洲 땅에 있었던 많은 고구려의 땅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3) 나는 이번 여행으로 1백년 전에 요동반도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고 온 것이다. 여순 감옥이 그 주 목적지였다. 적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나 주로 골프관광이라는 말을 듣고 실망했다. 우리를 위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거룩한 뜻으로 목숨을 바친 安重根의사와 그가 머물러 계셨던 여순 감옥은 거리도 얼마 멀지 않으니 한국인이려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교육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李 在 忠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B112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洛,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侁日,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新載, 林香默, 韓知沅



林光洙회장은 “모교가 동문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AIC동창회팀

동문 화합의 장, 골프대회 성황리에 마쳐

대표팀 단체전 6타차로 AIC 우승 메달리스트에 丁光榮·許永聖동문

각 부문별 수상자

▲대표팀 단체전

△우승: 정보통신방송정책과 정동창회 崔首賢(AIC 9기)·丁光榮(AIC 18기)·金容三(AIC 12기)동문 △2위: 치과대학동창회 1팀 林鍾昊(치의학82-88)·羅炳宣(치의학69-76)·姜泰聲(치의학71-77)동문 △3위: 법과대학동창회 禹泳華(법학62-66)·河光龍(법학76-80)·蔡鼎錫(법학75-79)동문

▲대표팀 개인전

△우승: 鄭淳泰(SPARC 20기)동문 △2위: 崔首賢(AIC 9기)동문 △3위: 林鍾昊(치의학82-88)동문 △4위: 김홍식(AIP 33기)동문 △5위: 金仁仲(FIP 8기)동문

▲친선팀

△우승: 서한교(대학원00-02)·韓松利(치의학89-95)동문 △2위: 尹勤煥(농학50-54)·金貞子(HPM 20기)동문 △3위: 李基俊(화학공학57-61)·이명숙(GLP 23기)동문 △4위: 林光洙(기계공학48-52)·朴銀美(지리교육84-88)동문 △5위: 金一燮(경영64-69)·白承惠(의류78-82)동문

▲메달리스트: 丁光榮(AIC 18기)·許永聖(치의학84-90)동문 ▲롱기스트: 백현일(치의학99-05)·權玲娥(의류학78-82)동문 ▲니어리스트: 金龍太(GLP 17기)·韓松利(치의학89-95)동문 ▲감투상: 李金器(약학55-59)·崔明珍(가정교육65-69)동문 ▲행운상: 崔明鎭(토목공학86-92)·趙貴用(의류76-80)동문



메달리스트 丁光榮(左) 동문, 林光洙회장, 許永聖(右) 동문

제8회 동문 골프대회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모교가 지난 9월 10일 발표된 QS 세계대학평가에서 37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하는 등 동문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동창회 역시 지난 8월 22일 제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8억7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연간 25억9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후배 인재양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이 되기 위한 모교와 총동창회의 힘찬 전진에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모교 李俊植연구부 총장은 축사에서 “모교가 QS 평가에서 드디어 30위권으로 진입하게 됐는데 이는 동문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으로 앞으로 해의 유수의 인재유지하는 등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대학에서도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고 동창회의 의사가 대학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교 李基俊 前총장은 건배사를 통해 “지난해 완공된 총동창회의 장학빌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현재 다양한 장학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세계 흐름에 맞춰 교수님들의 주요 강의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처럼 향후 모교가 세계 무대에서 30위권이 아닌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계기를 총동창회가 대학본부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이며, 이는 林光洙회장께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朴榮敏(체육교육62-66)경기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진 본상 시상에서는 함께 2백24타를 기록한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IC)동창회가 치과대학동창회를 6타차로 따

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2백30타를 기록한 치과대학동창회 1팀이 차지했으며, 林鍾安(치의학90-96)·柳東德(치의학79-86)·朱成彩(치의학80-86)동문으로 구성된 치과대학동창회 2팀은 2백34타를 기록해 3위를 차지했으나 ‘같은 대학 팀에게 중복시상을 하지 않는다’는 대회규정상 법과대학동창회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법과대학동창회팀은 2백38타를 기록했다.

남녀 메달리스트에는 72타를 기록한 丁光榮(AIC 18기)동문과 78타를 친 許永聖(치의학84-90)동문이 각각 선정됐다.

남녀 롱기스트상은 각각 2백30m와 1백50m를 기록한 백현일(치의학99-05)동문과 權玲娥(의류학78-82)동문, 남녀 니어리스트상은 金龍太(GLP 17기)동문과 韓松利(치의학89-95)동문이 차지했다.

남녀 감투상은 李金器(약학55-59)동문과 崔明珍(가정교육65-69)동문, 남녀 행운상은 崔明鎭(토목공학86-92)동문과 趙貴用(의류76-80)동문에게 돌아갔다.

한편 참가자들은 양식기세트를 비롯한 골프모자, 바디용품세트, 골프공, 실크 테라피를 기념품으로 제공받았으며 만찬 후 추첨을 통해 건강 검진권, 갤럭시노트, 드라이버, 호텔 식사권, 디지털 피아노와 클래식 기타, 원적외선 구이판 등 푸짐한 경품을 받았다.

삼익악기 金鍾燮(사회사업66-70 본회 부회장)회장이 제공한 디지털 피아노는 林香淳(수학교육60-64)동문, 대림산업 李竣鎔(경제56-60 본회 부회장)명예회장이 제공한 스쿠터는 金善振(체육교육77-81)동문이 당첨됐다. (香)



대표팀 개인우승 鄭淳泰(右) 동문



친선팀 남자우승 서한교(右) 동문



친선팀 여자우승 韓松利(右) 동문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姜信浩(의학46-52)본회 고문: 음료수 2백개
- 林光洙(기계공학48-52)본회 회장: 양식기세트 1백70개
- 李吉女(의학51-57)본회 부회장: 생필품 1백80개
- 李金器(약학55-59)본회 부회장: 유제품 6백개

- 李竣鎔(경제56-60)본회 부회장: 스쿠터 1대
- 孫京植(법학57-61)본회 부회장: 선물세트 12개
- 孫吉丞(상학59-63)본회 부회장: 위커힐호텔 식사권 2인용 5매
- 趙炳祐(섬유공학59-64)본회 부회장: 골프모자 1백80개

- 鄭啓泳(상학61-66)관악회 이사: 골프공 45박스
- 李潤雨(전자공학65-69)삼성전자 상임고문: 갤럭시노트(10.1) 1대·카메라 5대
- 金鍾燮(사회사업66-70)본회 부회장: 디지털 피아노 1대·기타 3대
- 鄭八道(AIP 1기)본회 부회장: 퍼터 6대
- 姜普英(HPM 1기)의료법인 안동병원 이사장: 건강 검진권

- 2인용 2매
- 申一汕(AMPFRI 14기)나노카보나 대표: 원적외선구이판 10개
- 辛東烈(GLP 3기)성문전자 회장: 쌀(10kg) 20포
- 姜德壽(GLP 8기)STX그룹 회장: 드라이버 2대·퍼터 2대
- 金尙熙(SPARC 5기)건강식품연구원 대표: 한방차 2세트
- 전익관(ABKI 1기)K&I그룹 회장: 실크 테라피 1백70개



아프리카에 사는 카림과
남극에 사는 아기펭귄
둘 다 행복해지는 기술,
한화케미칼의
첨단기술입니다

인간은 물론 지구까지 생각합니다.
오늘은 물론 100년 후까지 생각합니다.
석유화학에서 태양광, 바이오, 2차전지소재,
나노기술까지 인간과 지구를 혁신하는
첨단기술의 중심에 한화케미칼이 있습니다.

지구를 더 좋은 곳으로!

한화케미칼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교육혁신 프로그램·교수 강의 동영상’ 소위원회 구성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 교수회관 뱀부룸에서 제2차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본회의 장학연구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단과대학별 학부·학과 단위로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교의 주요 강의 및 특별강연 등을 인터넷에 무상 공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본회가 연간 12억원을 지원

하며, 지난 6월 27일에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특별위원회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李基俊(화학공학57-61)前총장, 任廷基(의학68-75)기획부총장, 朴鍾根(전기공학69-73)평의원회 의장, 朴枝香(서양사학71-75)중앙도서관장, 林哲一(교육82-86)교육부처장, 李在影(영문83-87)학생처장이 참석했으며, 본회 辛鉉雄(지리64-68)부회장, 崔道成(경영70-74)동문, 李在忠(법

학72-76)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학연구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에 앞서 모교와 본회의 역할 분담에 관한 의견이 오고 갔다.

또한 林哲一교육부처장을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로 위촉했다.

특별위원회는 모교가 본 사업을 주관하고, 본회는 사업계획 수립, 심사·선정 단계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학내에



서 본 사업을 주관할 기관으로 교무처와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선정하고 두 기관이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반 사항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부사업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 논의 및 심의하기로 했으며 소위원회에 비동문 위원 1명씩을 추가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협의했다. 〈표 참조〉

‘교육혁신 프로그램 개발 지원’은 각 대학 및 기초교육원을 대상으로 각각 2개 이내의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공모해 이중 7~8개의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3년간

연간 5천만원~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수 강의 동영상 개발 지원’은 모교의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10주차의 정규강좌 동영상 강의개발을 지원하며, 향후 이를 일반인에게까지 공개할 예정인 프로그램이다.

각 프로그램은 10월 23일까지 지원을 받아, 소위원회의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올해 11월부터 소요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향후 모교 교육 방식의 혁신과 지식의 나눔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沅〉

동문작품

지상 전시회



초지의 마을, Oil on Canvas, 90.9×72.7cm, 2007

尹善子作

〈작가약력〉

- ▲1961~1966 모교 회화과 졸업
- ▲개인전 3회
- ▲일본 국제 창작협회 회원전
- ▲대한민국회화제
- ▲아시아 현대미술 교우회 교류전
- ▲경기여류작가회 회원전
-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회원전
- ▲호울회 회원전 등 다수

제15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13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7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02-702-2233 · 팩스 : 02-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13년 3월 15일)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학 외		학 내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李基俊	공동위원장, 前총장	任廷基	공동위원장, 기획부총장
辛鉉雄	본회 부회장	朴鍾根	평의원회 의장
高 健	전주대 총장	李在影	학생처장
崔道成	한동대 국제화부총장	林哲一	교육부처장
李在忠	본회 사무총장	朴枝香	중앙도서관장
		金炯周	발전기금 상임이사

● 세부사업별 소위원회

교육혁신 프로그램 소위원회		교수 강의 동영상 소위원회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姜秉南	기초교육원 부원장	裴哲炫	종교학과 교수
郭錦珠	심리학과 교수	宋在鎔	경영대 학생부학장
金演洙	의대 교육부학장	李信亨	공대 학사부학장
李豪榮	언어학과 교수	林哲一	교육부처장
洪裕錫	산업공학과 교수	張素媛	평생교육원장

본보 논설위원에 金旻日·鄭然旭동문



조선일보 金旻日논설위원(右)



동아일보 鄭然旭논설위원(右)

본회는 지난 9월 18일자로 조선일보 金旻日(불어교육77-81)논설위원과 동아일보 鄭然旭(공법85-89)논설위원을 본보 논설위원으로 위촉했다.

金동문은 조선일보 파리특파원·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겸 국제부장 등을 지냈다.

鄭동문은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정치부 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관악언론인회 부간사장을 맡고 있다. 〈載〉

집이 경기도 동두천 산골에 위치하고 있어 매일 저녁 무렵 집 뒤의 산을 한 바퀴 가볍게 걷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하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산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리는 데 쾌적한 산속 공기를 마시며 걷으



鄭 琦 鎬

식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집 주변에 상추와 고추 등 채소류를 직접 길러 유기농 식단을 즐기고 있는 것 이야말로 나만의 특별한 건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한국어문화 명예이사장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 매일 저녁 한 시간씩 뒷산 산책

니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이 개운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

또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활동이 삶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문50-57)한국어문화 명예이사장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집에서 러닝머신으로 30분, 헬스클럽에서 두 번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매일 아침마다 공복에 30분씩 호흡운동을 하는 것이 나만의 특별한 건강법이다.



張 忠 植

은 대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 먹고 있으며, 음료로는 콩으로 만든 것을 즐겨 마시고 있다.

단국대 명예총장, 범은장학재단 이사장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인해 뇌 운동이 잘 되는 것 같다.

● 아침 공복에 30분씩 호흡운동

음식은 가리지 않고 먹는 편이지만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육류의 경우 집에서는 거의 먹지 않고 있다. 건강 식으로는 무와 매추(알이 작

뇌가 활동하면 다른 신체 부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교육52입)범은장학재단 이사장



창립 40주년 ‘대학원의 밤’ 개최

대학원동창회

대학원동창회(회장 崔鍾庫)는 지난 9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SNU 대학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내빈으로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李在忠사무총장, 대학원동창회 李光魯 前회장, 春園

李光洙(경성제대26입)동문의 夫人 이정화 여사, 俞碩鎭(경성제대44졸)초대 대학원동창회장의 夫人 金明係(성악51-55)동문과 崔鍾庫회장,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했다.

崔鍾庫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모교 대학원동창회 창립 40주년을 자축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학문후속세대인 후배들을 격려하고 선후배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邊昌九교육부총장은 환영사에서 “모교의 전체 구성원 중 대학원생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서, 학업 및 학업 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투자해 좀 더 자유로운 학문 활동이 이뤄지도록 힘쓸 것”이라 밝혔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 동문들의 큰 관심 속에 열리는 이번 행사가 동문들의 상호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어 대학원 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전했다.



치대·치대원동창회

연수회서 법인화 논의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秉燦)는 지난 9월 8~9일 제주도 중문동 일대에서 20여 명의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연례 임원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지난 회무를 점검하고 남은 회기의 예정사항과 추가 기획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현 치과계의 사회적 위상과 동창회의 역할을 의제로 진지하고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동창회 기본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학사업, 동창회 기금 조성 및 동창회관 건립 사업에 관련해 동창회 법인화 추진 중장기계획을 집중 논의했으며, 8천여 명의 회원 인재관리 및 치과계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창회로의 행보를 선언했다.

전기동문회

홈커밍데이 행사 가저

전기동문회(회장 張世昌)는 지난 9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1백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張世昌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에서 가족참여 게임, 레크리에이션, 만찬 및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위해 李達雨(전기공학48-53)·李林擇(전기공학61-65)·張世昌·李相鎬(전기66-70)·成圭棟(전기공학77-81)·韓榮鎭(전기공학79-83)·全洪範(전기공학81-85)동문과 39회 동기회가 금품을 출연했다. (載)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업계 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캐어하는 세심한 서비스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픈라자 7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S. Noble



장학금 1억9백여 만원 수여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9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203동 101호에서 2012년 제2학기 상록문화재단 및 일성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상록문화재단에서 학부생 18명과 대학원생 9명, 鄭潤煥회장이 기금을 출연한 일성장학회에서 학부생 9명과 대학원생 9명, 재단법인 서현에서 학부생 2명과 대학원생 2명 등 총 49명에게 장학금 1억9백3만원을 지급했다.

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韓仁圭이사장님이 5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농생대 상록문화재단이 매 학기 장학금 지급 총액을 늘려가며 어느덧 6회째를 맞이하

게 됐다”며 “여러 동문들이 재단에 많은 기부를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동문들의 힘을 모아 농생대 재학생 전원이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교 李鶴來학장을 대신한 축하에서 白南天연구부학장은 “韓仁圭이사장님, 鄭潤煥회장님을 비롯한 대선배님들이 개인 자산을 기금으로 출연해 주신 덕분에 재단이 설립될 수 있었다”며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록문화재단 韓仁圭초대 이사장은 “2백명 이상의 후배들에게 2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주게 되는 날이 머지않은 미래에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전자동문회

장학금 수여·명판 제막

전자동문회(회장 李潤雨)는 지난 9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2012년 제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에서 모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재학 중인 장학생 13명에게 4천3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에 대덕전자 金貞植(전자공학48-56)회장,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 李秉基(전자공학70-74)이사장,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朴南奎(물리83-87)교수가 참석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9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신공학관 전기공학부장실에서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에 1억원을 출연한 중앙일보 洪錫炫(전자공학68-72)회장의 명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장학생 13명에 9백60만원

간호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洪京子)는 지난 9월 19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교수회의실에서 2012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 장학금으로 장명석(간호3년)군과 김소현(간호1년)양에게 1백만원씩 2백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총 11명의 장학생에게 이윤경 장학금, 최애욱 장학금, 강신자 장학금, 김기주 장학금, 김현희 장학금, 57년 졸업생 장학

금, 이귀향 장학금, 이정자 장학금, 김남련 장학금, 이애주 장학금 총 7백60만원이 전달됐다.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추계골프모임 열어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회장 高在旭)는 지난 9월 15일 경기도 여주군 금강CC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추계골프모임을 가졌다.

이날 경기도에 참여한 동문들은 초가을의 화창한 날씨 속에 라운드와 만찬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10월 행사 캘린더

10월 20일(토) 오후 5시

• 자연대동창회 정기총회

관악캠퍼스 자연대학 501동
(문의: 02-880-8156)

10월 22일(월) 오후 12시30분

• AFB동창회 골프대회

경기도 용인시 88CC
(문의: 02-880-2529)

10월 26일(금) 오후 12시20분

• SPARC동창회 골프대회

경기도 용인시 플라자CC
(문의: 02-880-4353)

10월 27일(토) 오전 10시

• 상대동창회 바둑대회

서울 홍익동 한국기원
(문의: 02-761-2278)

가정을 지키는 방법

“매일같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네 남편 버릇을 어떻게 고쳤나?”
“간단해, 그가 집에 들어올 때 ‘당신이에요, 길동씨?’라고 말했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응, 내 남편 이름은 철수야.”

신의 뜻

어떤 할아버지가 버스에 올라탔다.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웬 할머니가 할아버지 무릎에 쓰러졌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신이시여!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잠시 후 차가 또 급정거를 했고,

고민 상담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 속상하다고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면서 대치 방안을 물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조언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나보다 너희 엄마에게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구나. 엄마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거든...”
(독자제보 환영)

빠른성사! 결혼성사시까지...

Since 2006. 2월 전국망연결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 TV “아침마당” (2011.10.28) 생방송 출연

회장 오동일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초혼

男	女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男	女
의사, 변호사 32~57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521-4405

정기학술세미나·골프대회 가져

AIP동창회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姜普英)는 지난 9월 21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姜普英(33기 안동병원 이사장)회장, 모교 공대 李愚日(기계공학72-76)

학장, 姜泰晋(섬유공학71-75)교수 등 2백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지식경제부 洪錫禹(무역74-80)장관이 ‘홍석우의 사과이야기 : 무역 2조볼 경제 진입을 위한 산업정책방향’을 주제로 1

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이 끝난 후 전임 동창회장인 금호전기 朴泳求(31기)회장에 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광주시 뉴서울CC에서 姜普英회장, 골프회 朴種焄(44기 대양전기 회장)회장 등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하반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AMPFRI동창회

라오스 해외연수

식품·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宋明儀)는 지난 9월 5~9일 라오스 비엔티엔, 방비엣 일대에서 해외연수 일정을 수행했다.

이번 행사에 宋明儀(AMPFRI



24기 고래푸드 대표)회장 등 4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해 혁명박물관,

왓시므앙 사원, 소금공장, 달랏싸오 등지를 견학했다.

훈올회

정기전시회 개최

모교 미대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훈올회(회장 金昇姬)는 지난 9월 5~10일 서울 태평로1가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제35회 정기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 1960년 이전 졸업한 원로회원부터 2007년 이후 졸업한 신입회원까지 66명의 동문 작가가 서양화, 한국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66점의 작품을 출품해 미술계와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80년 모교 미대 출신 여성 동문 12명이 모여 결성한 훈올회는 현재 1백50여 명의 회원이 모여 매년 정기전과 기획전을 열고 있다. <16면 모임탐방 참조>

정치외교학부동창회

孫鶴圭동문 강연

정치외교학부동창회(회장 任晟準)는 지난 9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정세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민주통합당 孫鶴圭(정치65-73)상임고문이 ‘18대 대통령의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모임에는 任晟準회장을 비롯해 具範謨·韓甲洙·吳在熙·李圭日·黃慶瀨동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HPM동창회

28기 수료생 축하연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회장 朴浩永)는 지난 8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보건대학원에

서 28기 수료생들의 동창회 가입 축하연을 개최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9월 22일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에서 30명의 동문이 친목 등산모임을 가졌다.

치대 21회 동기회

졸업 45주년 여행

치과대학 21회 동기회(회장 鄭寬喜)는 지난 9월 21~23일 부산 해운대를 거쳐 남해안을 일주하는 졸업 45주년 기념여행 일정을 수행했다.

鄭寬喜회장을 비롯해 4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한 이번 여행에서 한려수도, 남해 보리암, 순천만 갈대밭 생태공원 및 용산전망대, 순천시 소재 선암사 등지를 탐방하며 동문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載>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LP동창회 文炳昌회장

(CK그룹 회장)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동창회는 지난 4월 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CK그룹 文炳昌(12기)회장을 제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 동창회 소개를 해주신다면.
“현재 16기 과정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체 회원 수는 8백여 명입니다. 사실 최근 2년여 동안은 동창회 운영이 다소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여러 동문들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고, 지금은 좀 더 단단하고 끈끈한 조직

— 여러 군데의 특별과정을 수료하셨는데.

“교수님들의 열정어린 강의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또 제가 수료한 12기는 항상 단합이 잘돼 월례회나 골프대회가 매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룬 대학을 포함해 13개 남짓 되는 특별과정을 수료했지만 그 중에서도 ALP과정과 동창회에 가장 강한 애착을 느낍니다.”

“신뢰 바탕으로 네트워크 강화”

력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 회장단 구성은.

“임원은 50여 명이며 각 기수별 회장을 동창회 부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테크데이타 金鴻泰(10기)대표가 사무총장을 맡아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중점 추진 사업은.

“취임 이후 그동안 미진했던 동문간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11월 4일 1백20명 이상의 동문이 모이는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송년회를 추진해 동문들이 한자리에 어울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참여 속에 개혁이 있고 개혁 속에 신뢰가 있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집행부는 참여를 통해 동창회를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동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문 모두가 동창회를 자기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총동창회에 한 말씀.

“앞으로는 동창회의 내실을 다지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총동창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948년 충남 홍성 출생인 文회장은 중앙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BCN 회장, 아이텔리 회장, 축산기업중앙회 회장, 한국냉장 회장 등을 역임했다. <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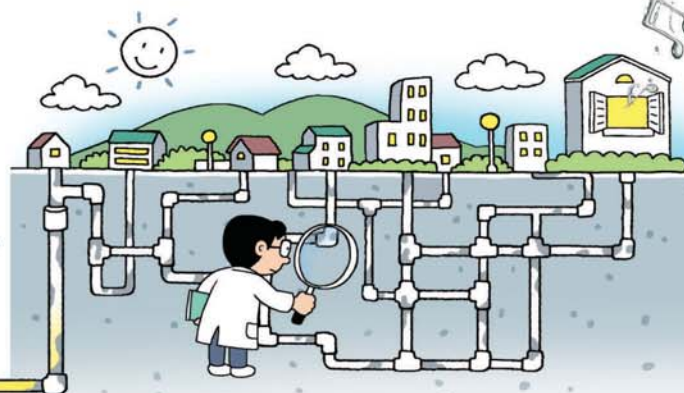


안전한 수돗물! 진정한 물복지!

20년이상 노후수도관, 서울-부산 거리의 100배

녹조로 인한 식수 위험, 가뭄에 따른 농산물 피해, 노후수도관으로 급증하는 단수사고는 물값 현실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나라, K-water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어깨를 주물러드리면, 어머니는
 “우리 딸 손맛이 최고네”
 소개팅을 시켜주면, 친구는
 “내 취향은 니가 제일 잘 안다”
 회식장소를 예약하면, 부장님은
 “권대리가 고르는 집은 항상 최고야!”
 참치캔을 따주면, 고양이는
 “냐옹! 나아옹!!”
 주어진 모든 역할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최고’로 인정받는다
 마치 효성이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효성에서 일한다



(주)효성 산업자재PG
권유리 대리

타이어코드 세계 1위
 스판덱스 세계 1위
 소형 ATM 세계 1위



중공업



산업자재



섬유



화학



건설



무역



정보통신



HYUNDAI
MOTOR GROUP

인류의 내일을 건설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소통이 단절된 곳에 길을,
꿈이 없는 곳에
희망을 건설하는 일 -
현대건설이
지구와 사람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WE
BUILD
TOMORROW



EXPO 2012
YEOSU KOREA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현대건설

화제의 동문

법무법인 송백 吳允德대표변호사

한때 우리나라 사법고시의 메카였던 서울 신림동 고시촌,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법무법인 송백 吳允德(행정61-65)대표변호사는 이곳 신림동에서 2003년부터 8년 동안 사재를 털어 쉼터 ‘사랑샘’을 운영하며 휴게, 상담 및 명상을 위한 공간과 명사 강연 등을 제공해 왔다. 삭막한 환경에서 힘겹게 공부하던 고시생들에게 사랑샘은 그야말로 오아시스와 같은 공간이었다. ‘신림동 멘토 변호사’로 알려진 吳동문은 사랑샘이 건물 재건축으로 지난해 2월 문을 닫게 되자 보증금과 이주비 등 5억원을 대한변호사협회에 기부했다. 그리고 지난 2월 吳동문의 기금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토대가 된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이 설립됐다.

미취업·실직 청년 위한 봉사 수행

썬터 사랑샘의 봉사정신이 재단의 형태로 부활하게 된 과정에는 모교 동문인 대한변협 辛永茂(법학63-67)협회장과 의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 있었다. 기금을 뜻있게 운용할 수 있는 재단을 찾아 수소문하던 吳동문은 어느 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회관 로비에서 우연히 辛



사회 약자 위해 ‘사랑샘재단’ 기금 출연
“타인 아픔 공감하는 기부문화 절실”

협회장과 마주쳤다. 모교 재학 시절 ‘인간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한국 휴머니스트 학생회’에서 함께 활동한 두 사람은 50년 전 쌓은 우정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사이였다.

“차를 마시면서 辛협회장이 근래의 안부를 묻기에 사랑샘 정신을 이어줄 수 있는 재단을 찾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마침 辛협회장도 공동선을 향한 변호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었더군요. 서로 뜻이 맞은 데다 50년 동안의 우정이 있다 보니 단번에 대한변협 산하에 사랑샘

의 정신을 계승·확대하고 발전시키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론이 나게 됐어요.” 사랑샘재단은 향후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규모를 점차 늘리고 미취업 및 실직 청년을 위한 상담과 강연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며, 공익활동 변호사와 경제적 고충을 겪는 예비 법조인에 대한 격려와 사회봉사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봉사 및 지원과 법률교육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辛협회장도 사랑샘 정신에 공감해 지난 9월 24일 사재 3천만원을 재단에 기탁했다.

다 많은 사람에게 그 정신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모교의 사회공헌 책임 확대 촉구”

지난 8월 22일 법대장학재단 이사장에 선임된 吳동문은 “우리나라의 사회공헌 문화에 있어서, 기부를 하는 문화가 아직 미흡한 것도 문제이지만 귀한 돈을 기부 받은 뒤 기부정신을 잘 살려나가면서 제대로 관리하는 문화와 시스템이 미숙한 것도 문제”라고 일침을 놓았다.

“모든 기부는 그 정신이 올바르게 이어야 합니다. 나눔을 행하는 이들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정신적, 인격적 진정성을 갖고 물질적인 기부 외에 직접 봉사에도 나서야 합니다. 기부자의 정신을 수혜자가 알게끔 해야 진정한 기부라 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재소자를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했으며 각종 장학회와 대학에 수석원의 장학금을 출연하는 등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묵묵히 실천해온 吳동문은 모교와 총동창회 역시 사회공헌의 폭을 보다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모교가 울타리 밖의 열악한 환경과 거거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교가 사회공헌의 폭을 넓혀 그 효과가 사회에 골고루 퍼진다면 서울대 폐지론 같은 이야기도 나오지 않게 되겠죠. 총동창회 역시 동문들끼리의 잔치에만 머무르지 말고 봉사와 나눔이 내재된 조직으로 더욱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載)

북쟁 趙漢烈대표

최근 태블릿PC,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유통·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디지털화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기존의 종이책을 디지털화해 전자책(E-Book)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다.

불황을 면치 못하던 출판시장에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동력으로 활기를 준 (주)북쟁의 趙漢烈(컴퓨터공학94-00)대표를 만나 전자책과 콘텐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북쟁은 출판사가 종이책을 만들면서 정성들이는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최대한 살려 고품질의 전자책으로 만드는 회사다. 지금까지 위즈덤하우스·열린책들·웅진씽크빅·한경BP 등 국내 우수 출판사와 전략적 계약을 유지하고 ‘하루 15분 정리의 힘’, ‘닥치고 정치’, ‘열혈강호’, ‘꿀’, ‘사소한 차이’ 등 1백여 권의 앱을 선보이며 전자책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앱북 시장 점유율 70% 차지

趙대표는 “북쟁은 2008년에 창립했던 콘텐츠유통회사 인터큐비트에서 만든 책 관련 SNS서비스의 이름”이라며 “전 회사에서 상품가치가 있는 될 만한 콘텐츠를 검증해오다 전자책을 만들게 됐고, 이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보고자 전 직장 동료와 함께 독립해 북쟁을 설립했다”고 설



을 디바이스에 맞게 자동 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趙대표는 “앱북을 만드는 데 있어 90%는 종이책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나머지 10%는 디지털기능과 같은 부가기능에 초점을 맞춰 콘텐츠가 돋보이도록 한다”며 “특히 앱북을 시장에 내놓을 때 북쟁의 이름이 아닌 출판사 이름으로 출시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출판사와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업전략을 통해 많은 출판사의 호응을 얻으며, 지속해서 긴밀하고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자책 시장 이끄는 대표 리더

“고품질 콘텐츠로 출판시장 활성화”

명했다.

그는 모교를 졸업한 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넷사랑컴퓨터’, 반도체 솔루션 업체 ‘칩스앤미디어’ 등을 거치며 벤처운영에 대한 꿈을 키웠고 오늘날 전자책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표기업 북쟁의 대표가 됐다.

북쟁은 기존의 전자책 국제표준 포맷인 이펍(EPUB)이 가진 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전자책 포맷인 ‘BXP’(Bookjam Extensible Publication)를 개발했다. BXP는 화면크기에 따라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종이책과 같은 고품질의 레이아웃

지금까지 작업한 1백여 개의 책 중에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골라달라고 하자 그는 ‘심리치료식당’이라는 앱을 꼽았다. 심리치료식당은 심리상담을 하며, 동시에 팝송도 들 수 있는 앱북으로 유튜브 검색을 통해 팝송을 들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그는 “7살 된 둘째 딸이 이 앱을 보더니 ‘아빠 책이 살아 움직여’라는 말을 하더라”며 “딸의 말을 듣고서 무엇보다 절제된 움직임을 통해 디지털 감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너

화제의 동문

무 화려하지도 정제되지도 않은 전자책을 만드는 것이 북쟁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심리치료식당은 이처럼 북쟁이 추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담긴 책이라는 것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자에 유통

현재 국내 도서·출판시장이 1조5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책 시장은 전체 비율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전자책 시장이 전체의 15~17%인 것과 비교하면 아직은 규모가 작은 편이다. 전자책 시장의 규모를 넓히기 위해선 기존의 종이책 소비자와 기존 유저들을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趙대표는 이에 대해 “종이책 독자들의 기호에 맞게 계속 개발하고 종이책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앱을 애용하는 유저에게는 다양한 디지털 기능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나리오작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콘텐츠에 관심을 두던 그는 오늘날 전자책 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됐다. 북쟁을 통해서 출판사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趙대표는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콘텐츠사업에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沅)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 코트라 50주년

Middle East ALGER·AMMAN·BAGHDAD·CAIRO·CASABLANCA·DAMASCUS·DUBAI·ISTANBUL·KUWAIT·MUSCAT·RIYADH·TEHRAN·TEL AVIV·TRIPOLI **Europe** AMSTERDAM·ATHENS
BRUSSELS·BUCHAREST·BUDAPEST·COPENHAGEN·FRANKFURT·HAMBURG·HELSINKI·LONDON·MADRID·MILANO·MUNICH·PARIS·PRAGUE·SOFIA·STOCHOLM·VIENNA·WARSAW·ZAGREB
ZURICH **Asia** AUCKLAND·BANGKOK·CHENNAI·COLOMBO·DHAKA·HANOI·HOCHIMINH JAKARTA·KARACHI·KUALA-LUMPUR MANILA·MELBOURNE·MUMBAI·NEW DELHI·PHNOM
PENH·SINGAPORE·SYDNEY·VIENTIANE·YANGON **Central & South America** BOGOTA·BUENOS AIRES·CARACAS·GUATEMALA·HAVANA·LIMA·MEXICO
PANAMA·SANTIAGO·SANTO DOMINGO·SAO PAULO **North America** CHICAGO·DALLAS·DETROIT·LOS ANGELES·MIAMI·NEW YORK·SILICON VALLEY
TORONTO·VANCOUVER·WASHINGTON D.C. **Africa** ACCRA·ADDISABABA·DOUALA·JOHANNESBURG·KHARTOUM·LAGOS·NAIROBI **China** BEIJING·CHANGSHA
CHENGDU·CHONGQING·DALIAN·GUANGZHOU·HANGZHOU·HONGKONG·NANJING·QINGDAO·SHANGHAI·SHENYANG·TAIPEI·WUHAN·XIAMEN·XIAN
ZHENGZHOU **Japan** FUKUOKA·NAGOYA·OSAKA·TOKYO **CIS** ALMATY·BAKU·KIEV·MOSCOW·NOVOSIBIRSK·SANKTPETERBURG·TASHKENT·VLADIVOSTOK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문화재 유출 경로 밝히는 작업 선행돼야”

동문록 찾아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安輝濬이사장

지난 9월 25일 모교 고고미술학과 安輝濬(고고인류 61-67) 명예교수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安이사장은 “초대 이사장으로서 우선 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 다지기에 앞장서는 한편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유출 경로를 파악한 후 그에 따른 문화재 환수 및 현지에서의 전시 등 활용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답 : 李東植(KBS비즈니스 감사)논설위원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모교 동창회보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이유로 이사장직을 고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첫째 이 자리가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에 비해 단시일 내에 업적을 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이 컸었고 또 개인적으로 해오던 저술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라일이고 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맡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문화재 환수가 많이 이뤄지겠구나’라고 기대할텐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곧 문화재들이 속속 환수되겠군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아주 난감하게 느껴집니다. 일례로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외규장각 도서의 경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프랑스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정식 환수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약탈문화재로 당연히 환수 받아야 하는 문화재의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위가 불분명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재단이 우선 진행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약탈 등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나간 경우, 둘째 외교관계 및 통상 등 우호적인 입장에서 선물로 주어지거나 상품으로 거래된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경우입니다. 셋째 절대 다수의 문화재처럼 유출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국외문화재의 유출 경위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약탈문화재가 확실한 것은 강력하게 환수를 추진하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것은 이미 그 나라의 소유가 된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최대한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알리는데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출 경위가 어떠한든 환수

를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 문화재를 사장시키지 않고 박물관 및 공공기관을 통해 한국문화를 자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외소재의 우리 문화재는 15만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나라별, 분야별, 시대별 등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과 함께 국보 및 보물에 해당



생과 蔡堂 金載元선생과의 인연을 맺게 됐지요.

군대를 다녀온 직후 金載元선생께서 ‘우리나라 미술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통으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시며 고고학보다 미술사쪽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간곡히 말씀하셔서 金元龍선생과도 상의한 후 하버드대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 안이사장은

1940년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모교 고고인류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미술사학으로 문학 석사학위와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외로 반출된 한국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환수를 목적으로 지난 7월 문화재청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안이사장은 40년 가까이 문화재 관련 업무에 힘써온 대표적 전문가로서 재단을 이끌 책임자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회화사’, ‘한국 그림의 전통’, ‘한국의 미술과 문화’, ‘한국 회화사 연구’, ‘안견과 몽유도원도’, ‘미술사로 본 한국의 현대미술’, ‘청출어람의 한국미술’ 등이 있다.

국외문화재 현지 전시 통한 홍보활용 필요

인문학 패러다임 ‘文史哲藝’로 바뀌어야

하는 뛰어난 작품에 대한 구분도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대처 방법 역시 다르게 마련 될 것입니다.”

— 문화재 관련 분야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교 시절 담임의 권유로 상과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교 문리과대학에 고고인류학과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입시 3개월을 앞두고 진로를 바꾸게 됐습니다. 고고인류학과에 입학해 三佛 金元龍선

생은 스승들에 의해 만들어진 미술사학자입니다. 모교에 입학해 훌륭한 교수님들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金元龍선생이 고고학과를 고고미술사학과로 개편했던 것은 우리나라 미술사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모교 이후 각 대학에도 고고미술사학과가 생겼고, 이것이 미술사학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분의 학자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 그동안 많은 책을 출판하셨는데 특별히 애착이 가는 책이 있다면.

“지금까지 40여 권의 책과 1백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국내 최초로 쓰여진 것들이어서 읽어 볼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롭게 새겨집니다. 특히 한국 회화사 분야에서는 개척자적 역할을 했다고 외람되지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1980년에 출판한 ‘한국 회화사’는 우리나라 회화의 특성과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대표적 개설서로서 지금까지 총 20쇄가 발행됐습니다. 2000년에 논문집으로 발행된 ‘한국 회화사 연구’ 역시 회화사 관련 논문집으로는 처음이며 제일 반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뤘기 때문인지 논문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8년에 나온 ‘미술사로 본 한국의 현대미술’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책들은 대부분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다뤘지만 이 책은 현대의 우리 미술에 대한 저만의 생각과 주장이 담겨 있어서 후배들이 安輝濬의 미술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가장 유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청출어람의 한국미술’도 우리나라 고미술의 재평가에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 개인적 철학이리든지 좌우명은.

“주어진 일을 함에 있어서나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특히 공무를 수행할 때는 공명정대·공평무사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아서 하자는 생각을 늘 합니다.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객관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문화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물론 우리 민족의 지혜와 창의성, 기호와 미의식, 철학과 사상, 생활과 종교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후대에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후학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의 인문학자들이 인접 분야와 미개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학문적 시야를 보다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술은 인간의 미적 창의성과 감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담아낸 분야여서 인문학의 모든 분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뤄야 하는데 예술을 통한 인문학의 발전을 꾀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예술을 배제한 인문학의 패러다임은 인문학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을 통칭하는 ‘文史哲’이란 말 대신 예술을 포함한 ‘藝史哲’, 혹은 ‘文史哲藝’로 인문학의 패러다임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술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창의성을 실물로, 시각적으로 증거처럼 보여주는 사실상 유일한 장르입니다. 선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작품을 남기고 있는 유일한 예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술사는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키워야 할 인문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安輝濬면집장·정리= 林香默기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전자제어기술 회사가 있다는 것

자동차 강국의 최첨단 전자제어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자동차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함께 세계 최첨단 전자제어기술을 펼치는 회사,
대한민국에는 현대오트론이 있습니다

HYUNDAI
AUTRON

현대오트론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는 R&D Company 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현대기아차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자제어기

엔진변속기 최적제어 및 안전주행에서 인포테인먼트까지, 자동차의 전 영역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의 최첨단 전자제어기를 개발합니다

소프트웨어

최고의 차량 성능 구현을 지원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통합 플랫폼
개발과 관련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2 에너지 R&D 종합 성과전시회」 개최

1. 행사 목적

- 지식경제 에너지 R&D 과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평가의 장으로 활용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근간인 에너지 R&D 우수성과에 대한 대(對)국민 관심도 제고
-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한민국 에너지 R&D 성과 공유 및 정보 교류 창구로서의 역할 제고

2.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2 에너지 R&D 종합 성과전시회
- 일시/장소 : '12.11.8(목)~11.9(금)/일산 KINTEX 2전시관 10홀
- 주최/주관 : 지식경제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참석대상 : 에너지 R&D 사업 및 인력양성사업 과제수행자, 공모전 수상자(과학기술 꿈나무(중·고생),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우수 논문 등(대학생)), 채용박람회 참가 신청자 등 2,000명 내외

3. 주요 프로그램(안)

2012년 에너지 R&D 종합 성과대전 6대 주요 프로그램(안)

1.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및 사업화평가 우수기술의 테마별 전시관 운영
2.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들과 함께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운영
3. 과학기술 꿈나무들의 동기의식 부여를 위한 공모전 및 체험관 운영
4. 정책방향 및 정보공유를 위한 에너지기술 주요 이슈별 포럼 개최
5. 기술사업화 확대를 위한 맞춤형 1:1 Biz Meeting관 운영
6.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광고·홍보전략 운영

훈울회

훈울회(회장 金昇姬)는 모교 미술대학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1980년 창립한 이래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전을 개최하며 우리나라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그려 나가고 있다. 가을을 알리는 산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9월의 어느 날, 金昇姬(응용미술65-69 국민대 교수)회장이 운영하는 서울 권농동의 ‘갤러리 카페 소연’에 金載姪(회화56-60)·權寧淑(회화58-61)·韓英玉(회화58-62)·林純子(조소69-73)·安末煥(회화76-81)·崔恩慧(동양화02-07)동문이 모여 동문을 아끼고 사랑하는 저마다의 마음을 펼쳐 보였다.

훈울회는 졸업 후 2년 정도의 작품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동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창립 멤버인 權寧淑동문은 “십 수 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 귀국을 했는데 여성 동문들의 예술활동 모임이 전

을 스케치 여행, 연말 정기총회 등을 통해 동문들이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安末煥동문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전람회를 여는 한편 미국, 일본,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국제교류전을 갖기도 했다”고 말했다.

훈울회 회원들은 동창회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회원들의 경력이나 현업은 제각각이지만 그런 사실들은 훈울회라는 이름 안에서 모교 미대 출신의 예술가라는 의미 하나로 통일된다. 權寧淑동문은 “간혹 어떤 동문의 작품을 두고 아마추어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 동문이 훈울회를 통해 예술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과 훈울회가 그런 여러 동문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훈울회는 초일류 작가의 작품 발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모교 동문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예술 활동의 양과 질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한 동창회로서 영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역우회(회장 金漢植)는 역도부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난 1979년 조직된 이래 매년 홈커밍데이, 미스터 서울대 선발대회, 동·하계 합동훈련, 포럼 등을 진행하며 선후배간 우의를 다지고 있다.

“현재 2백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역우회는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를 떠나 모인 이들이 재학생 시절의 열정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그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애가 매우 깊습니다.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역우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역도부 후배들도 참여해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재학생과 OB들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강점입니다. 무엇보다 역우회의 뿌리가 되는 모교 역도부는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이할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金龍亨(불어교육76-83)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 올해 새롭게 역우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金漢植(불어교육77-81)회장의 말에서 역우회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金漢植회장에 의하면 역우회는 1975년 당시 동송동에 위치한 모교 본부가 관악캠

역우회

개최되고 있는 ‘미스터 서울대 선발대회’는 역도부와 역우회의 색깔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사로 공부만 잘할 것 같은 서울대생들이 몸을 가꾸고 이를 선보인다는 사실에 당시 대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현재는 ‘미스터 서울대 선발대회’와 ‘미스터 서울대 의·치대 선발대회’로 나뉘 봄과 가을에 각각 열리고 있으며, 역우회 회원도 찬조출연하고 있다.

金회장은 “미스터 선발대회는 단순히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라 젊음의 향연, 재학생과 졸업생이 어우러져 기억을 더듬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으로 역도부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며 “매년 역우회 회원 2~3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비록 현역들에 비해 몸은 좋지 못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재학생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대 여성 동문들의 ‘큰 울타리’

1980년 창립...매년 정기전 개최



지난 9월 27일 한자리에 모인 훈울회 회원들. 崔恩慧·安末煥·林純子·韓英玉·權寧淑·金載姪동문, 金昇姬회장.

무한 것이 안타까워 처음 창립 발의를 했다”며 “1980년 창립 당시 1960년, 1961년 졸업생 12명이 모여 서울 인사동의 관훈미술관에서 첫 전람회를 열었다”고 회고했다.

개개인의 명성이나 영리 추구를 위해 시작한 모임이 아니었던 만큼 훈울회는 모임에 가입한 누구에게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金載姪동문은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도 있지만 졸업 후 다른 일을 하거나 가정에만 충실했던 동문도 많기 때문에, 훈울회 안에서는 누구나 경력 여부를 떠나 동문의 자격으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전시 작품에 경력을 달지 않았다”고 전했다.

權寧淑동문도 “보통 동문전을 열면 회화, 조각 등 분야별 전람회를 갖게 되는데, 훈울회는 그런 구분 없이 미술의 모든 장르를 한데 모아 동문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전시할 수 있게 한다”며 “흙, 금속, 종이, 나무 같은 여러 가지 재료를 중 한 가지만 선택하는 소재전을 여는 등 동문들에게 장르를 떠난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훈울회는 매년 한 번의 국내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때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전을 열기도 한다. 전람회 외에도 세미나, 가

金昇姬회장 역시 “회원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도 많지만 모임 안에서는 모두 한 사람의 동문일 뿐”이라며 “1백50여 명의 회원 중에서 선출된 회장, 총무, 재무, 서기 등의 임원진과 각 기수별 간사로 구성된 운영위원진이 서로 협심해 모임을 꾸려가고 있다”며 외견과 내실이 탄탄한 동창회로서의 면모를 자랑했다.

훈울회는 모임의 더 큰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유명 작가들이 다수 소속된 전문가 집단인 만큼 전람회 이외에도 세미나와 공개 강연을 개최해 동문 간 상호 교류의 폭을 넓히고 비회원 동문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동문들의 인적 자원을 심분 활용한 재능기부의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보다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해 회원 모집에도 힘쓸 계획이다.

훈울회는 그 모임의 이름처럼 창립이래 32년 동안 모교 미대를 졸업한 여성 동문들의 창작 활동과 단합을 지키는 ‘큰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 이들의 예술을 향한 열정과 모교 및 동문을 향한 사랑이 나날이 커져나가 세계 미술사에 큰 족적으로 남게 되기를 기원한다. (載)

34년 역사 지닌 역도인의 모임

‘재학생-OB’ 끈끈한 유대 강점



지난 9월에 열린 ‘미스터 서울대 의·치대 선발대회’에 참가한 역도부 재학생들이 대회를 마치고 역우회 선배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퍼스로 이전하고 뒤이어 공과대학과 상과대학, 농과대학이 차례로 이전하면서 문리과대학 역도부가 주축이 돼 통합되는 과정에서 졸업한 동문들 간의 친목 도모와 재학생 후배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목적으로 1979년 발족했다고 한다. 다만 아직까지도 의과대학과 치의학대학원의 경우 연건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총역우회 아래 관악·연건캠퍼스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역우회는 두 달에 한 번꼴로 굵직한 행사를 개최하며 회원 간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매년 봄에 개최되는 홈커밍데이를 비롯해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합동훈련, 관악·연건캠퍼스에서 각각 진행되는 미스터 서울대 선발대회와 포럼 등이 그것.

이처럼 많은 행사로 인해 ‘자칫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 金회장은 “정기적인 행사 중 포럼과 홈커밍데이만 역우회에서 진행하고, 합동훈련과 미스터 선발대회의 경우 재학생들이 중심이 돼 행사를 치르고 역우회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후원하고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196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지금은 2백여 명의 회원이 등록된 역우회이지만 한때는 역도부 회원이 급격히 줄어들며 한 기수에 2~3명만이 명맥을 유지하는 위기에 몰리면서 역우회 역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金회장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바빠다 보니 운동을 자연스레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한편으로는 몸짱 열풍이 불면서 역도부의 운영방식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회원이 증가해 현재는 관악역도부와 의·치대역도부 모두 30여 명 이상의 부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선배들과 끊임없이 운영방식에 대해 의논하고 포럼을 개최하며 재학생들을 초청, 함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변화를 주는 한편 학내에 계시는 선배들의 지원과 격려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모교 사회학과 林玄鎭(사회67-71)교수와 체육교육과 羅永一(체육교육76-80)교수의 경우 역도부 선배이자 지도교수로서 후배들을 이끌어주며 역우회와 역도부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香)

동문 기고

늦은 나이에 꿈을 찾아 미국행 길에 올라 피나는 노력 끝에 목표를 달성한 金泰煥(영문60-65)동문의 성공 스토리를 국내 동문들에게 들려주고자 미주동창회보에 게재된 내용을 간추려 정리했다. 金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후 한국일보 및 Korea Herald 기자로 활동했으며, 남북회담 사무국 외신 담당관으로 제7차 남북 적십자 회담(평양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스티븐슨 랜치에서 E-Mini Haven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주>

金泰煥(영문60-65)E-Mini Haven CEO의 성공 스토리



1974년 3월 9일 32살 생일날 서울 김포 공항에서 NWA 비행기를 타고 무작정 미국행을 감행했다. 낯짜 변경선 덕분에 생일날 생의 제1기를 한국에서 끝을 맺고, 같은 날 미국에서 제2기를 시작한 것이다.

이곳에서 잡은 첫 번째 정상적인 업무는 뉴욕시의 다운타운 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출판사에서 전공을 살려서(?) Yellow Pages에 나오는 문안을 교정하는 일이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잡은 첫 직장 일이 영자지에서 배운 교정이어서 일하는 데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었으나, 급료가 적은 것이 문제였다.

미군 입대... 대학 강의 수강

그러던 어느 날 집사람이 ‘친구 남편이 미군에 입대했는데, 복무 중이나 제대한 다음에 혜택이 좋았는데 한 번 알아보는 것이 어때냐’고 언저시 내 의사를 타진했다. 그 리하여 1976년 4월 20일 뉴저지주 남부에 있는 Fort Dix 신병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늦여름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포트 브래그의 2nd Support라는 행정 지원 부대에 배속을 받았다.

신고를 하는 내게 중대장(대위)이 “어떻게 미국 군대에 입대하게 됐나”고 물었다.

“군에서는 월급을 주면서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해 입대했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목표”라고 대답하자 중대장은 “아, 그래, 참 좋은 목표를 가졌구먼. 우리 부대 안에 시스템 분석가들이(Systems Analysts) 모여서 일하는 데가 있어. 그곳에 배치해 줄 테니 가서 일하도록 하게”하면서 책임자에게 전화해 나를 그곳에서 일하게 해줬다.

부대에는 포트 브래그 안에 몇 개의 대학이 분교를 설치해 수업하고 있었다. 군인이 현역으로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들으면 정부가 수업료의 4분의 3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한 번 시도하기로 작정하고 처음 한 과목만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두 과목, 세 과목 등 차츰 늘려 나갔다.

근무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부대 안에 있는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의 분교로 가서 강의를 들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분교에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Fayetteville 시내에 있는 분교로 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강의를 들었다.

그렇게 제대하기 전에 졸업장을 따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아 고학년(Junior, Senior) 과목을 분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낮에 분교로 가야만 Upper Level Courses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근무를 저녁이나 밤에 해야만 했다. 그 당시 나는 14th Data Processing Unit에서 컴퓨터 오퍼레이터로 근무 중이었는데 3교대 상황에서 나만 계속 저녁이나



1983년 6월 하버드 MBA과정 졸업식 때 모친, 아내, 두 딸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밤 당번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허용해줄 리도 만무한 상태였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문제가 쉽게 풀렸다. 어느 날 중대 게시판을 보니

위치한 Bank Audit Agency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워싱턴으로 이사갈 날을 손꼽으며 기다리고 있던 중 Fayetteville에서 ‘Job Fair’가 열린다고 해서 알아보니 여러 대형 회사에서 봄에 군에서 제대하고 사회로 나가는 ROTC 장교들을 주 대상으로 리크루팅을 하러 온다는 것이었다. 그 중 GM (General Motors)도 금융 계통 인력을 모집한다고 해서 그 쪽에 응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곳은 그야말로 지망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지망생들이 이력서만 가져가 리크루터(Recruiter)에게 보여주었는데 나는 한 가지를 더 가져갔다. 내가 Bud Murphy씨에게 보여준 것은 Managerial Accounting의 채점된 답안지였다. 그곳에는 담당 교수가 시험지 여백에다 ‘Teddy, You have no problem to become an Accountant. If you want, I can help you.’라는 글뿐만 아니라 큼직한 A+ 점수까지 표시돼 있었다. 그는 내게 다음 날 오후 5시 30분까지 Slot에 오라고 시간을 내줬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

SP(Security Police) Volunteer를 뽑는다는 공고가 붙어 있었는데, 근무 조건이 저녁번과 밤번을 교대로 경내를 순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근무가 끝나면 Fayetteville 본교로 가서 Upper Level Courses를 듣고 졸업에 필요한 전 과목을 이수해 GI Bill 혜택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제2의 대학 졸업장을 군대에 근무하면서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2년6개월만에 우등 졸업

군 복무 3년 가운데 기본 훈련(Basic Training), 교육(Computer Operator Course at Army Administration School in Indianapolis), 야외 훈련, 집안 어른인 장례 참석차 한국 방문 등 약 6개월을 뺀 2년6개월 동안 90학점을 이수하고 GPA 3.8로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미국에서는 한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면 Full Time Student로 인정해주는데, 나는 현역으로 군에 복무하면서 한 학기에 27학점까지 수강하기도 했다.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좋은 회사들이 리크루팅(Recruiting)하러 오지는 않았으나 다행히 정부 기관에서 선발하러 오는 곳에 신청해 Bank Audit Agency, IRS와 Defense Audit Agency 등 세 곳에 선발이 됐고, 그 중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다음날 지정된 시간에 인터뷰 장소에 갔더니 Murphy씨는 어제 보여준 시험지에 감명을 받았는지 전공이나 업무에 관한 질문은 한 가지도 하지 않고 30분 동안 가벼운 주변 정담만 나눴다. 나는 일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큰 GM에 취직이 안 되더라도 면접만 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는 “본사에 가서 면접 일정을 주선해서 연락해주겠다”고 흔쾌히 응해줬다.

Memorial Day 다음 화요일에 GM의 Buick Division에서 면접을 보고 비행장으로 가는 길에 나를 배웅해준 Brad Rogers부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환대에 감사하며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에 와서 인터뷰한 것만 해도 저로서는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미 직장이 정해져 있으므로 GM에 되든 안 되든 개의치 않으니 결과만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고 답하자, 그는 “Will tomorrow be soon enough?”라고 했다.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 “Sure enough. Thanks.”라고 짧게 대답했다.

Fort Bragg부대 가까운 곳에 있는 Spring Lake, NC 집에 돌아와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 GM이 나를 뽑았다는 통보가 왔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Teddy Kim

의 취업 문제에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데 대해 놀랄 따름이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것은 Recruiter인 Murphy씨가 내가 보여준 시험 답안지에 담당 교수가 적은 메모를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무작정 미국에 온 지 5년 만에 세계 최대 기업에 근무하게 되어 기분이 참 좋았다. 일을 시작한 지 약 2주가 지나서 내 인생에 일대 전기를 가져다준 큰 사건이 일어났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갈색머리의 미녀가 사무실에 전사처럼 나타나 자기 소개를 했다.

“Hi, My name is Corrine Walijarvi and a Harvard MBA. Just graduated earlier this month. I started to work here as a General Supervisor. Please help me when I may come to ask for your help.”

‘하버드대 MBA’코스 밟아

나는 그녀의 당찬 자기 소개에 한마디로 깜짝 놀랐다.

첫째, 나이 30도 안 되는 여자가 General Supervisor로 일한다는 것은 파격적이었으며, 둘째로는 하버드 MBA 출신을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어떤 계기를 받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틈만나면 Corrine을 찾아가 하버드 MBA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나는 Corrine의 설명을 듣고 하버드 MBA 프로그램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나 그곳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졸업하기는 더 힘들기 때문에 확실한 자신이 있을 때에만 도전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려 자체 점검부터 시작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Fixed Factors와 Variable Factors가 있기 마련이다.

우선 하버드 MBA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한 Fixed Factors를 살펴보니 GMAT 점수와 이력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변동 요인이었다. GMAT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GMAT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다 놓고 매일 연습하고 주말에는 실제 시험을 치르듯이 모의 테스트를 했다.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읽는 속도가 미국 학생보다 뒤쳐지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익혀서 방향을 잃지 않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했다.

남들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군데에 원서를 제출하지만, 나는 준비를 잘 했고, GMAT, GPA 등 모두 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서 하버드 한 곳에만 지망하기로 작정하고 원서를 제1차 마감일에 맞춰 Thanksgiving Day 무렵에 보냈더니 1981년 1월에 합격 통지서가 왔다.

이상으로 내가 아무런 계획 없이 ‘기회의 나라’라는 말만 믿고 미국에 와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GM에서 근무하게 됐고, 남들이 동경하는 Harvard MBA Course에 합격했는지를 대충 설명해 드렸다.

현재 EMiniHaven.com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원유(Crude Oil)와 금(Gold)등의 선물을 소액 단위(E-Mini)로 거래하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있다. 2008년에 닥친 불황 때 실직했거나 사업이 어려워 손을 놓고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분들이 아침 시간에 약 한 시간 정도 거래를 해서, 하루에 1백50~2백달러 정도씩 벌도록 도와주고 있다.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중국유학생 초청 행사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9월 7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중국유학생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오찬을 겸해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보직교수

등 학내 인사와 장신썬 주한중국대사, 중국유학생 1백20여 명이 참석했고, ‘중국 유학생이 본 한국의 미래’, ‘서울대 학생이 본 중국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간담회 및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吳총장은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모교 또한 중국센터 개설 및 프로그램 진



행 등 중국에 관한 연구 강화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이 자리는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 교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의

취지이자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캐치프레이즈인 ‘아름다운 우정, 행복한 동행’을 강조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모교는 중국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 모교 중국센터(SNU in China)를 설립했고, 모교 학생들의 중국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SNU in Beijing’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洪起玄교무처장, 李俊植연구부총장, 朴枝香도서관장, 李愚日학장, 柳鍾珽관악구청장, 吳然天총장, 林光洙회장, 金貞植이사장, 申海澈사장, 鄭哲圭이사장, 尹友錫공대동창회장

융합강의동 및 중앙광장 준공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愚日)은 지난 9월 25일 관악캠퍼스에서 융합강의동(33동) 및 중앙광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공대 金民洙기획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모교 吳然天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柳鍾珽(철학78-85)관악구청장 등을 비롯해 모교 보직교수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융합강

의동 준공은 강의동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고, 친환경적인 캠퍼스를 구성하는데 일조하며, 공과대학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했다는 세가지의 의미가 있다”며 “융합강의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주시고, 지원해주신 관악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융합강의동은 모교 공대의 위상에 걸맞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건물”이라며 “융합강의동 준공을 위해 물심양면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법과대학

‘괴테와 다산과 법’展

법과대학(학장 丁相朝)은 茶山 丁若鏞 탄생 2백50주년을 맞아 ‘괴테와 다산과 법’이라는 주제로 9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관악캠퍼스 법대역사관(서암법학관 내)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18세기 동·서양을 대표하는 지성인인 괴테와

茶山の 생애 및 사상을 비교해 보고 동서문명의 교차로를 비교 연표와 함께 관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모교 법학과와 재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 02-880-7565>

국제대학원장에 文輝昌교수 임명



지난 9월 22일 모교 국제대학원장에 국제학과 文輝昌(대학원77입)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文원장은 한국외대를 졸업한 뒤 모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88년 美 위싱턴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원>



“최신시설의 갑상선 센터 신축 이전”

고객에게 드리는 3가지 약속!

- 첫째** **친절한 병원**
친절한 마음으로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 둘째** **고객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병원**
신속한 의료서비스로 대기시간을 줄이겠습니다.
- 셋째** **원칙을 지키는 병원**
환자 중심의 진료를 실천하겠습니다.

센터/클리닉

소화기내시경센터, 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중풍수술센터, 하지장액류클리닉, 유방클리닉, 다한증클리닉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PET-CT실, 핵의학감마카메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행정원장 변주선
사법대학 동창회장(60년차)

대림성모병원
DAERIM SAINT MARY'S HOSPITAL

[진료예약 및 상담]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57(대림1동 978-13)
02-829-9000
대외협력 본부장 신동훈 010-3796-9371
건강상담 팀장 홍석윤 010-2484-0123



제9회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국내외 1백86개 공·사기업 참가

모교는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관악캠퍼스 대학본부(행정관) 앞 잔디광장에서 경력개발센터(소장 金泰完)가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본회가 후원하는 '2012년 제9회 우수인재 열린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하반기 채용시즌을 앞두고 더 많은 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비 구직자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기업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까지 이틀간 진행하던 행사기간을 3일간으로 바꾼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22%가 증가한 1백86개의 국내외 공·사기업이 참가했다. 특히 외국 기

업들의 국내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구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히타치, 도레이첨단소재, 미츠이스미토모은행, 이스즈자동차 컨티넨탈AG, 레달 등 일본, 독일, 핀란드의 유명 기업이 참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일본 기업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25개 기업이 참여했고 국내 구직자의 활동적인 면모



모교 암병원

환자 위한 국악공연

모교 암병원(병원장 盧東榮)은 지난 9월 5일 연건캠퍼스 암병원 3층 로비에 '국악을 국민 속으로'라는 주제로 국립국악원과 함께 제29회 '암병원 음악풍경'을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국립국악원과 모교 암병원이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기관, 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음악회는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를 포함해 가야금 연주와 노래가 어우러진 '방아타령'과 대금 독주곡인 대금산조 '원정현류', 생황과 단소의 합주곡 생소병주 '수룡음' 등이 공연돼 2백여 명의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盧병원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치료 과정에서 지친 환자와 가족에게 우리 고유의 멋과 흥이 담긴 국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모교 암병원은 환자와 가족들이 문화생활을 가까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음악회를 기획해 개원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와 적극성을 높이 사며 인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2004년 첫 개최 후 올해 9회째를 맞이한 모교 채용박람회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민의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모교 재학생뿐 아니라 전국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외부인에게도 적극 홍보, 개방하는 열린 채용박람회로 기획·운영됐다.

경력개발센터는 매출액 기준 2백위 이상, 채용설명회 개최 경험, 학생 설문조사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재학생의 소리

고전 읽고... '사람됨'에 대한 지혜 얻고

고전을 통해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나아가 '사람됨'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모인 고전연구회의 회장입니다.

한국 경제가 모방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와중에 인문고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전 읽기'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됐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이를 계기로 인문대를 지망하게 됐고, 함께 고전을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대학생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어져 현재 고전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고전연구회'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진지하고 지루할 것이라는 오해를 살 때도 있지만, 실제 모임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재미있고 발랄하게 진행됩니다. 고전연구회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모임으로 구분합니다. 고전연구회의 구성원 전체가 참석하는 학습활동과 동아리 내 소그룹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개별 학회활동입니다. 학습활동은 매 학기 개강총회에서 논의를 통해 정한 고전을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강독하고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회활동은 아무런 제한 없이 뜻이 맞는 학우들끼리 자발적으로 구성, 진행하기에 더 깊고 색다른 고전 읽기가 가능합니다.

지난 1학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논어를 함께 강독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이



朴 宰 延

(중문11입)

고전연구회 회장

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가곤 합니다.

고전 읽기 모임 이외에도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계절 MT, 신입생 환영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전연구회의 가장 큰 과제이자 어려움은 학생들의 낮은 관심입니다. 고전은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의 벽도 높지만, 스펙 쌓기와 학점 관리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에 질문을 던져볼 만한 여유가 없는 현실은 더욱 넘기 힘든 벽입니다.

고전연구회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고전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이러한 벽을 낮춰갈 것입니다. '고전 읽기가 앞으로의 생활을 결정한다'는 믿음으로 곳곳이 활동하는 고전연구회에 동문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미술관

'디자인 미래학' 전시

미술관(관장 權寧傑)은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Design Futurology' 전시회를 개최한다.

대표적인 전시 작품은 진기종의 '겔프만의 낭만', David Trubridge의 'Flax'이며, 인류환경 문제를 예술적 시각을 통해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沅>

꿈·첨단·창의의 빛으로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개척하는 기업

대한민국의 비츠로,
전 세계를 비추겠습니다.

전기산업 분야의 리더로서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비츠로그룹

- | | |
|-------------------------|---|
| VITZRO TECH | 고저압기기, 개폐장치, 우주항공분야 및 플라스마 응용기기
차단기 및 개폐기 절연물, 보호기기, 접속재 |
| VITZRO CELL | 리튬전지분야, 특수전지분야, EDLC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 |
| VITZRO MATERIALS | 진공인터럽터(VI), 폴리실(Polysil)
에폭시(Epoxy)절연물 |
| VITZRO MILTECH | 군용(Military) 특수전지분야 |

VITZRO | 비츠로그룹



www.nps.or.kr



대한민국이 활짝 웃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서 **꼭 받고!**
높은 수익률로 **많이 받고!**
물가까지 보장받아 **더 받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있어 대한민국이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동반자 평생월급 **국민연금**



저소득 근로자 :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nps.or.kr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년교수 프로필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23명의 정년· 명예퇴임식이 지난 8월 31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제자 사랑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姜光夏교수·경제학

67년 모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석사학위, 미텍사스오스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경제학부에 부임해 모교 기획실장·경제연구소장, 지식경제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정년을 앞두고 지난 8월 22일 별세했다.



黃瓊圭교수·철학

66년 모교 철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2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8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에 부임해 한국윤리학회 회장, 철학연구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 로마교황청 생명의료윤리 자문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을 지냈고,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국가석학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河英善교수·정치외교학

67년 모교 외교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75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9년 미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국제문제연구소장·미국학연구소장,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한국위원장을 비롯해 동아시아 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李鎭仁교수·화학생물공학

66년 모교 응용화학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2년 모교 대학원에서 화학공학 석사학위, 79년 미텍사스오스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교무부학장·부총장을 역임했고, 환경안전연구소장,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공업화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姜錫昊교수·산업공학

66년 모교 물리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3년 미워싱턴대에서 석사학위, 76년 미텍사스 에이앤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 산업공학과에 부임해 모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장, 세계생산공학회 한국 대표이사, 아시아OR학회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崔恒洵교수·조선공학

65년 모교 조선공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2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9년 獨逸드비히막시밀리안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공대 연구지원소장·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장을 지냈고, 대한조선학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孫孝澤교수·에너지시스템

67년 모교 자원공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3년 공학석사학위, 79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日도쿄대 이학부 지질학교실 객원연구원을 비롯해 英런던대 임페리얼 칼리지 응용지구화학연구그룹 객원연구원을 거쳐 모교에 부임해 대한공업진흥공사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玄正悟교수·산림과학

66년 모교 농생물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미미네소타대에서 76년 석사학위, 8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장·학술립장,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회장, 국제임업연구기관연합회 국제평위원회 한국대표를 비롯해 한국토종연구회 부회장을 지냈다.



文龍麟교수·교육학

67년 모교 교육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76년 모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 87년 미미네소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종대학교를 거쳐 89년 모교에 부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한국교육학회 회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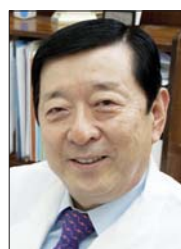
朴成鎔교수·교육학

70년 모교 교육학과 졸업, 75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1년 미미네소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를 거쳐 88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사범대학 교육행정연구수원장 겸 중등교원연구수원장·교육연구소장, 한국교육방법학회 회장, 한국열린교육학회 회장, 교육공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尹希苑교수·국어교육

75년 모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해 79년 졸업, 84년 佛파리7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원대학교를 거쳐 89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연구부처장·국어교육연구소장·대외협력본부장·국제한국학센터 소장, 한국교과교육학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교류담당관 등을 지냈다.



姜淳範교수·의학

67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6년 석사학위, 83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 의학과에 부임해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과장,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아시아산부인과학회 초대 회장을 비롯해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相駿교수·의학

66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석사학위, 78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바이오이종장기 개발사업단장, 모교병원 장기이식센터장, 대한혈전지혈학회 이사장, 대한이식학회 이사장 및 회장, 대한혈관외과학회 이사장 및 회장 등을 지냈다.



閔陽基교수·의학

71년 모교 의학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4년 석사학위, 77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 의학과에 부임해 대한비과학회 회장, 대한전식 및 알레르기학회 이사장, 대한안면외상성형연구회 회장, 아시아비과학회 회장을 비롯해 국제비강감염알레르기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朴在亨교수·의학

66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석사학위, 8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듀크대 심장MRI연구센터소장, 인터벤션영상의학학회 회장, 한국심장혈관영상의학회장, 아태심혈관 및 인터벤션 영상의학회장 등을 지냈다.



申熙澈교수·의학

65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석사학위, 80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의학과에 부임해 모교 의과대학 발전기금조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위원장, 대한주산의학회 학술위원장을 비롯해 대한태아의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安孝變교수·의학

65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4년 의학 석사학위, 83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병원 소아학교실 과장을 지냈고, 대한소아과학회 회장, 대한혈액학회 회장,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및 회장을 비롯해 대한면역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尹在一교수·의학

66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의학 석사학위, 79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해 피부과 주임교수를 지냈고, 대한피부과학회 이사장 및 회장, 대한피부연구학회 이사장 및 회장, 아시아피부과학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건선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信福교수·행정학

64년 모교 교육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2년 모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3년 미퍼츠버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 행정학과에 부임해 모교 교무처장·행정대학원장·부총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을 지냈다.



金堯九교수·치의학

65년 모교 치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6년 치의학 석사학위, 81년 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치과대학에 부임해 구강내과·진단학교실 교수를 지냈고, 미플로리다대 객원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 대한구강내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金重守교수·치의학

66년 모교 치의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4년 의학 석사학위, 81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 치과대학에 부임해 치과대학 학생부학장·교무부학장·대학장을 역임했고, 대한구강생물학회 회장, 공직치과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생리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고객의 행복을 위해 뛰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은행으로서 고객님들께 사랑받아온 경남은행!

지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역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은행이 뛰겠습니다!

손은일이 생깁니다  경남은행



共同物流シリーズ ⑥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초원을 향한 물소떼의 목숨을 건 도하는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공영 - 바로 공동물류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아시아 물류를 선도하는
종합공동물류기업으로 성장해 온 로지스올 그룹 -

로지스올이 종합공동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결코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기업과 국가의 물류경쟁력 향상이란 사명감과 고객과 함께
모두가 공존공영해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로지스올은 ULP(Unit Load Pool)시스템을 바탕으로
동북아 국제 SCM서비스를 구축, 한·중·일의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공동물류의 선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SCM의 모든 과정을
고객과 함께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로지스올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
물류공동화, 물류합리화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LogisALL
Total Logistics Alliance

콩트 릴레이

아버님께 아뢰나이다

金 二 求(국문78-82)소설가



아버님 아니 존경하는 황덕수 의원님, 아버님이 공천 현금 오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저는 충격과 함께 벅차오르는 심정을 억누를 길 없어 이렇게 몇 자 아버님께 아뢰옵고자 합니다. 아버님의 이번 사건은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아버님이 자식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 옥살이까지도 불사하며 몸을 던져왔음을 증명하는 뜻깊은 것입니다. 아버님의 삼십여 년 정치 역정에 아버님이 철없는 불초자식을 위해 어떤 고뇌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지 아버님은 몸소 저희에게 일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집

수십억원짜이나 받아 챙긴 사실을 떠올려 보면 더더구나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어쩌면 우연한 제보에 의존하는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미약한 수사력 탓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심오한 어떤 정치공학적인 암산이 뒷받침된 정교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 아닌지 불초자식은 감히 아버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물려받은 것 별로 없는 저희 집안의 빈한한 살림살이를 일으켜 수십년간 가정을 튼튼하게 건사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삼십여 년 정객 생활 동안 아버님도 대권의 큰 뜻을

비록 이제 대권의 꿈은 쪼그라들었으나 여전히 막강한 여권의 실세로서 세상을 쥐고 흔들게 하는지 감히 저는 알고 하고 싶지 않고 알 수 있는 지혜와 슬기도 미처 깨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박 회장이 담배상자에 담아 보낸 뽕뽕한 현금 오천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불초자식은 아버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회사 간부가 아버님의 측근인 김 실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운전기사가 증언한다 하니 그것은 사실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민하신 아버님의 거래라면 한층 더 거대하고 품위있고 기묘하고 절묘하리라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백억이나 오십억도 아닌 일금 오천만원이라니요. 지나가던 개가 걸음도 늦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말 일입니다. 헐.

아버님은 제게 그런 위세를 내보이지 않았지만 불초자식은 대권을 향한 아버님의 원대무비한 꿈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이 진심으로 슬프기만 합니다. 아버님은 정치판에 휘둘려 특히 자식 일이나 아내를 따뜻하게 챙겨주지 못한 것을 마음으로 늘 무척 미안해하고 계셨지요. 이 아둔한 자식도 그 십분지 일 정도는 능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결코 꿈을 접지 마시

시오. 이번 일로 빙글 날개가 꺾인 듯하나 아버님의 장엄한 분골쇄신이 어찌 아버님 일신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설사 아버님의 혐의가 벗겨지지 못하고 이년이나 삼년쯤 저 어둡침침한 감방에서 고초를 겪게 된다고 해도 아버님의 그 고초는 저에게는 너무나 눈물겹고 값진 은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년이나 삼년간 감옥살이보다 더 혹독한 노동에 시달린다고 해서 이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에서 어느 누가 쉽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의리는 다만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버님의 대권 후보를 위협할 새롭게 부상하는 후보에게 결정적 한방을 날리기 위해 아버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이미 카드를 마련하셨습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아버님의 그 극진무궁한 공력은 예술가의 자제와 빗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는 오로지 의리가 있는 경우만이 허용돼야 합니다. 한 마리 희생양으로 감방 구석에서 잡범들과 함께 쓸쓸히 잊혀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용납돼서도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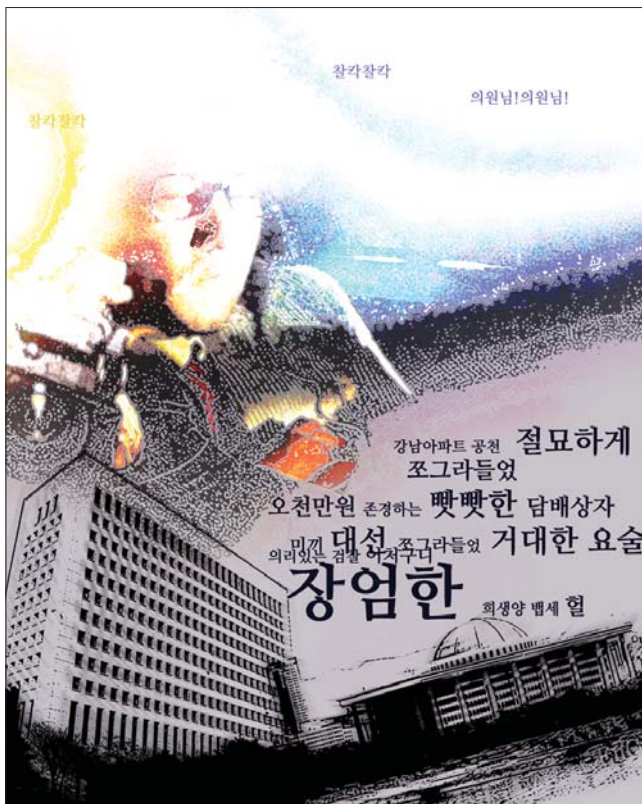
이 불초자식은 아버님의 부활을 믿고 아버님을 뜨겁게 응원하며 존경할 따름입니다. 아버님의 그 지극정성이 아버님의 출세와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초자식의 모호한 인생과 가족의 안녕을 지켜주기 위해 선택된 것임을 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저 무지막지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아버님의 그 견고한 표정, 그 안쪽에 흐르는 인간적인 정리의 간절함을 어찌 아버님의 피를 받은 불초자식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니 원망스러운 민윤기 회장님, 놀라셨지요. 웬 잘못 날아든 편지인가 하고요.

이 못난 자식은 구속되는 황덕수 의원의 늪렁한 모습을 보며 아, 저분이 나의 아버지였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아버지를 향한 애뜻한 마음이 실꾸리에서 실 풀려나오듯 술술 풀려나왔습니다. 거창하게 ‘회장님’이시지만 아버님은 시민단체의 같잖은 감투를 스스로 쓰시고 머슴처럼 분주하게 낮밤없이 싸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이날 입때껏 어머니가 허리가 휘어지도록 조그만 인테리어 가게를 열어 밤낮 없는 노가다로 남매를 가르치고 심지어는 아버지 용돈까지 챙겨드렸으니 딱히 가장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아버지로서는 여지없이 부끄러워하실 일이지요. 불초자식은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저 많이 바쁘신 분이구나 알았을 뿐이지 우리 가정의 빈한함에 그토록 책임이 있는 원흉인 줄은 미처 몰랐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서민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든 안 하시든 조금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의 자유이고 선택이지만, 불초자식이 중학교 시절 사달라던 값싼 기타조차 간단히 물리치시고, 그 흔한 영어학원 한 번 보내지 않고, 대학 4년을 제가 학비벌이 아르바이트와 방황으로 8년 동안이나 다니게 한 데 대해서 전혀 과녁치 않는 태도를 보이셔서 안 됩니다. 아버님, 황덕수 의원님을 본받으십시오. 불의든 정의든 그 수단과 방법은 아버님이 알아서 하실 일, 아버님이 주장하시는 노동복지를 우선 당신의 아내에게부터 실현해 주십시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 역시 아버님이 지지하는 대권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엄혹한 청년 실업의 계절이 쉽사리 끝날 것이라고 낭만적으로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버님, 청년 실업의 종식을 주장하는 대권 후보를 따라가기 전에 먼저 이 불초자식의 실업을 끝내는 데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삼년 만에 만난 미국 유학 중에 들어온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 너 왜 이렇게 늙었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곱늬어가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 (서양화02-07)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 역시 아버님이 지지하는 대권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엄혹한 청년 실업의 계절이 쉽사리 끝날 것이라고 낭만적으로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버님, 청년 실업의 종식을 주장하는 대권 후보를 따라가기 전에 먼저 이 불초자식의 실업을 끝내는 데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

권 여당을 겨는 이번 수사는 이 어리석은 불초자식에게 아버님의 하해와 같은 사랑을 일깨워주는 죽비와 같은 따가운 내리침이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야당에게는 서릿발처럼 가혹하고 집권 여당에게는 면봉처럼 가늘고 무디기만 하다는 비판이 난무하던 차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때려잡는 이즈음의 회오리바람 칼춤을 아버님은 끝내 비켜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칼끝이 정말 엄정하고 호된 司正의 감이 뵈는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심심풀이 먼지떨이나 먼 죄부 수사로 마감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의 태양처럼 빛나는 대권 후보의 강력한 오른팔이신 아버님이 일금 오천만원을 챙겼다는 것은 그 커다란 총선 선거관을 뒤흔들었던 아버님의 위세로서는 면목이 전혀 안 서는 일입니다. 야당의 저 아랫자리 찬조인사격인 여인네가 공천 영향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아

품고 4선의 경력을 쌓으며 이 나라를 이끌어오는 데 큰 몫을 하셨습니다. 예닐곱 번에 걸쳐 뛰어들었던 선거관에 들어간 무지막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셨는지 그것은 감히 뽕뽕한 제가 황새의 큰 걸음을 짐작할 리 없고, 다만 이 불민한 자식을 위해 중·고등학교 시절 월 기백만원대의 과외를 아낌없이 시켜주시고 제 여자 친구의 유학비까지 지원해 캐나다로 함께 유학을 보내주신 크나큰 은덕을 어찌 제가 모르거나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부평의 지린내 풀풀 풍기는 전세방에서 강남의 사십평 아파트로 수직적인 계급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의상학과 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진출해 커리어우먼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성실 충직한 어머니의 봉급만으로 가능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어떤 신묘한 요술이 그 험난한 정치판을 헤쳐오면서 거꾸러지지 않고 가정을 건사해냈고

사리 오천만원의 목돈을 손에 여탈 수가 있겠습니까. 아아, 아버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제가 이런 어법을 쓰다니 모순이라고요. 아버님, 다만 저는 세인들의 입길에 오른 오천만원을 예로 들었을 뿐, 어찌 오천만원에 한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의 장엄한 분골쇄신을 집권 여당의 저 유력한 대권 후보께서는 결코 망각하거나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판에는 의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리부존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 유력한 대권 후보가 꿈을 이루는 좌절하든 아버님의 분골쇄신은 철저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며 잊힐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님의 대권 후보가 승리한다 해서 아버님의 처지가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한 육개월쯤 일찍 사면으로 풀려나실 수는 있겠지요. 아버님의 대권 후보가 요동치는 대선판에서 거꾸러진다고 해서 아버님의 처지가 불리하다고

동 정

수 상

▲金在浩(생물교육53-57 가톨릭대 명예교수·명동성모안과 원장)=내년 4월 20일 미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가 수여하는 2013년 명예로운 안과인상 수상.

▲金東虎(행정56-61 단국대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장)=지난 9월 25일 제21회 고운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23회 고운문화상(고운문화예술인상 부문) 수상.

▲韓東殷(외교60-65 비스코인터내셔널 고문)=지난 9월 3일 제16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李本守(응용화학64-68 전인하대 총장)=지난 9월 13일 화학공학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창조근정훈장 수훈.

▲李成俊(고고인류64-69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오는 10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언론회가 수여하는 제21회 대한언론인상(특별공로 부문) 수상.

▲劉丁烈(기계공학65-69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지난 9월 17일 제57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 응용 부문) 수상.

▲崔元吉(전기공학70-74 현대미포조선 사장)=지난 9월 13일 제9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 수훈.

▲許粹烈(경제70-74 충남대 교수)=지난 9월 17일 제57회 대한민국의학술원상(사회과학 부문) 수상.

▲趙煥復(무역71-76 前駐멕시코 대사·외교통상부 본부대사)=최근 멕시코 정부로부터 ‘아즈텍 독수리 훈장’ 수훈.

▲朴興信(외교72-76 前駐프랑스 대사)=지난 9월 13일 외교장각 도서 반환 등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로훈장 ‘그랑 오피시에’ 수훈.

▲崔俊豪(동물73-77 KAIST 교수)=지난 9월 17일 제57회 대한민국의학술원상(자연과학 기초 부문) 수상.

▲金聖勳(제약77-81 모교 제약학과 교수)=지난 9월 17일 제57회 대한민국의학술원상(자연과학 응용 부문) 수상.

▲趙敏行(화학83-87 고려대 교수)=지난 9월 17일 제57회 대한

민국의학술원상(자연과학 기초 부문) 수상.

▲趙南赫(대학원98-01 모교 미생물학교실 교수)=지난 10월 12일 대한바이러스학회로부터 한탄상 수상.

▲安鎬元(HPM 6기 한국심성교육개발원장)=지난 10월 3일 평택고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李東基(IFP 7기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전남본부장)=지난 9월 13일 제6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시상식에서 봉사상 수상. 또 제9회 전국장애인대회 함께하는 문예글짓기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대상 수상.

인 사

▲金學俊(정치61-65 단국대 이사장)=지난 9월 17일 임기 3년의 동북아역사재단 제3대 이사장에 임명.

▲千文宇(약학61-65 동국대 약대학장·약대동창회장)=최근 임기 2년의 아시아의약화학연맹(AFMC) 회장에 선출.

▲郭宗勳(법학71-75 前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지난 9월 7일 의정부지법원장에 임명.

▲申鉉澤(역사교육71-75 前여성가족부 차관·동국대 석좌교수)=지난 9월 10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

▲鄭準基(의학71-77 모교 핵의학교실 교수·모교 병원 의학역사문화원장)=지난 9월 1일 대한갑상선학회 회장에 선출.

▲金二洙(법학72-76 前서울남부지법원장·前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장)=지난 9월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

▲朴洪佑(법학72-76 前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정부지법원장)=지난 9월 7일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

▲崔炳德(법학72-76 前울산지법원장·前수원지법원장·대전고법원장)=지난 9월 7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

▲黃贊鉉(법학72-76 前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前대전지법원장)=지난 9월 7일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

▲朴聖姬(가정관리73-77 前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세명대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9월 10일 게임문화재단이

사에 선임. ▲王圭彰(의학73-79 모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지난 9월 8~1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0회 세계소아신경외과학회(ISPN)에서 회장에 선임.

▲李鎭盛(법학74-78 前서울중앙지법원장·광주고법원장)=지난 9월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

▲趙炳顯(법학74-78 前서울고법 부장판사·前부산지법원장·서울행정법원장)=지난 9월 7일 대구고법원장에 임명.

▲金庸憲(법학74-79 前서울고법 부장판사·前대전지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지난 9월 7일 광주고법원장에 임명.

▲安昌浩(사회75-79 前서울서부지검장·前광주고검장·서울고검장)=지난 9월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

▲趙喜大(법학75-79 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9월 7일 대구지법원장에 임명.

▲崔在亨(법학75-79 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9월 7일 대전지법원장에 임명.

▲盧東榮(의학75-81 모교 암병원장)=지난 9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임.



www.microdigital.co.kr

“IP-CAMERA MDS-i301”



영상보안 전문기업, 마이크로 디지털

마이크로 디지털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대표이사 한 중 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19 호서대 벤처타워 1212호 | TEL : 02-2627-5280~8 | FAX : 02-2627-5295~6

▲柳英日(영문76-80 법무법인 울촌 변호사)=지난 9월 14일 임기 2년의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에 선임.

▲崔完柱(법학77-81 前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9월 7일 울산지법원장에 임명.

▲姜日源(법학78-82 前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9월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

▲李俊虎(사법81-85 前대법원 재판연구관·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지난 8월 3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임명.

▲姜晋基(IFP 1기 前제일기획 SBC 본부장·디앤디 로지스틱스 대표)=최근 iToi 대표이사 겸 I&I 대표이사에 취임.

행 사

▲權赫昇(상학53-57 前서울경제신문 사장·한국경제전략연구원 이사장·백교문학회장)=지난 10월 6일 강릉 죽헌 한다리마을 思母亭 시비공원에서 제3회 백교문학상 시상식 개최.

▲俞東濬(잠사56-60 先農會 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9월 20일 서울 여의도동 '외백'에서 열린 새누리당 陳永(법학71-75) 정책위 의장 초청 간담회에서 농

업현안 협의.

▲徐桂淑(기악56-60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피아니스트)=지난 9월 27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제자인 李駿星(기악81-85)·黃允暎(기악85-89)·千玄庭(기악88-92)·趙允敬(기악91-95)·조소연(기악94-98)·차宣姬(기악86-90)등문 등과 함께 음악회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10월 6일 수원행궁광장에서 '즐거운 축제에 몰들다'를 주제로 제49회 수원화성문화제-수원예술축전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9월 27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대외채무문제와 대북식량차관문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張萬基(경대원66-68 인간개발연구원장)=지난 10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소설가 金辰明씨를 초청, '한민족의 뿌리, 고구려'를 주제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개최.

▲朴憲烈(화학공학67-71 중앙대 교수·국제힐빙 학회장)=지난 9월 8일 서울 시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수필집 '힐링·힐링의 세계, 두 자연의 하모니' 출판기념회 개최. 또 15일 서울여대에서 '자연을 활용한 힐링 방안'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개최.

▲李承玲(조소67-71 서양화가)=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거울-거울 속의 초상'을 주제로 개인전 개최.

▲崔榮殖(성악70-74 한국가곡연구소장)=지난 9월 17일 서울 부암동 부암아트홀에서 한국의 작곡가 시리즈 두 번째 무대인 '鄭回甲의 가곡' 개최.

▲韓英惠(기악71-75 가천대 겸임교수)=지난 9월 24일 서울 일원동 세마리팔레스홀에서 洪淳美(기악71-75 종신대 감사)등문과 함께 '하양과 까망에서'를 주제로 '피아노 2중주의 밤' 개최.

▲柳槿永(의학72-78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아태암예방기구 사무총장)=지난 9월 24~28일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국제전문가 자문을 위해 컨설턴트 자격으로 출국.

▲鄭相俊(영문79졸 모교 영어영문학과 교수·한국아메리카학회장)=지난 9월 21~2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趙源東(경제75-80 한국조세연구원장)=지난 9월 20일 '조세정책의 과거·현재·미래' 등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鄭在晃(법학77-81 성균관대 교수·한국공법학회장)=지난 9월 21일 서울 재동헌법재판소에서 '경제 민주화'의 중요 쟁점

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文京海(작곡78-82 작곡가·누낙문화예술기획 대표)=오는 11월 3일 서울 동숭동 상명아트홀에서 '따뜻한 겨울'을 주제로 클래식 기타와 극음악의 숨이 있는 음악회 개최.

▲趙泰玄(대학원79-83 가천경영연구소장·단국대 강의교수)=지난 9월 17~21일 서울 동작문인협회 시사진에 출품. 또 10월 10일 '성공하려면 비워라 즐겨라 미쳐라'(행복에너지) 공저 출간.

▲朴世衍(국악97-01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지난 10월 4일 서울 부암동 부암아트홀에서 '젊은 예인들의 만남'을 주제로 가얏금 독주회 개최.

▲조소연(기악94-98 피아니스트)=지난 9월 16일 서울 금호아

트홀에서 첼리스트 신수정(기악95-99)등문, 바이올리니스트 조유리(기악96-00)등문과 함께 제4회 클랑 트리오 정기연주회 개최.

▲조정민(기악99-03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지난 10월 8일 서울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더블베이스 독주회 개최.

▲김정은(기악00-04 첼리스트)=오는 10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베토벤, 라벨 등의 작품으로 보블리스트 리오 연주회 개최.

▲장은진(성악00-04 한국가곡연구소 연구원·소프라노)=지난 10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바흐, 슈만,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으로 독창회 개최.

■ 참가 명복을 빕니다 ■

▲裴榮漢(상학49-58 초록배미디어 명예회장)=9월 23일 별세(84세)
▲金容振(작곡49-57 모교 명예교수)=9월 15일 별세(82세)
▲李光世(정치52입美컨트주립대 교수)=9월 5일 별세(78세)
▲李成均(기악52-57 모교 명예교수)=9월 27일 별세(78세)
▲林秉泰(상학53-57 태평양물산 회장)=9월 9일 별세(78세)
▲崔鐘煥(AMP 5기 삼환기업 명예회장)=9월 11일 별세(87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B112호
- 이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 11월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혜택은 물론 차별화된 만남 주선, 동문미팅파티 등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철저한 비공개 회원관리
- 공무원 표준약관 사용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추천. 경향신문 유망브랜드 대상 수상
- KBS TV가이드 제휴사
-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 정보 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100세에도
함께 하는
진짜 종신
연금보험은
어디일까?”

100세 시대

연금을 10년 20년만 보장?
평생 연금이 나와야지~

그렇다면 그런 연금보험은 무엇일까?

정답은 생명보험 종신연금보험!

100세 시대에 딱 맞춘 100퍼센트 보험은 무엇일까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평생연금 혜택을 위해 설계된 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종신연금보험 뿐입니다.

30년 동안 국내 진단검사의 길을 개척해온
녹십자의료재단이 GC Labs의 이름으로
글로벌 진단검사의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 ▶ 의학유전체연구소
- ▶ 대사의학연구소
- ▶ 진단검사의학부
- ▶ 병리학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314번지 | Tel. 031) 260-9600, 02) 578-0131 | www.gclabs.co.kr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한창 ENPLA

신 간

■ 법과 정의·복지

— 金哲洙 저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인 모교 법학부 金哲洙(법학52-56 본보 논설위원) 명예교수가 한국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 법에는 실정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법이 있고, 법의 이념에는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이 있으며, 실정법의 배후에는 도덕·이성·복지·평화 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법이 지배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동안 쓴 원고들을 모아 출판했다.

제1장 ‘법과 도덕’, 제2장 ‘법의 이념’은 법학개론적 시각에서 저술된 것이고, 제3장 ‘법의 목적’, 제4장 ‘법의 제정과 집행’은 헌법학적 시각에서 쓴 것으로 법학개론의 헌법편을 구성하고 있다. 제5장 ‘법적 안정성’, 제6장 ‘한국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착’, 제7장 ‘바람직한 통일헌법의 미래상’은 법사회학적·입법정책학적 시각에서 집필했다. <진원사刊·값35,000원>

■ 노자와 웅

— 李符永 지음



한국웅연 구원 李符永(의 학 52-59) 원장이 노자의 ‘도덕경’을 웅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책으로, 노자의 통찰이 우리 마음의 심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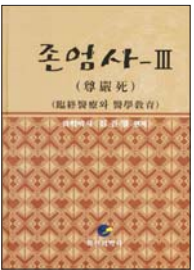
동양사상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카를 융은 그의 학설의 핵심인 정신의 전체성, 즉 ‘자기’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노자의 ‘도’를 제시했으며, 원초적이며 보편적인 원리를 동양사상에서 찾아내고자 했다.

이 책에서 李동문은 웅의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노자의 말들을 풀이하고 동시에 노자의 입장에서 웅의 생각을 조명한다. <한길사刊·값18,000원>

■ 존엄사III

— 金建烈 편저

단국대 의대 학장·부속병원장·의무부총장, 대한결핵협회 회장 등을 지낸 세계결핵제도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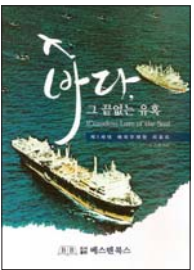


金建烈(의학 53-59) 사무총장이 오랜 임상 경험과 ‘노년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스러운 죽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

이 책은 의사를 교육해 배출하는 의학교육에서의 임상죽음학 교육의 필요성을 더 강조한 ‘연명치료중단’의 연구총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최신의학사刊·값25,000원>

■ 바다, 그 끝없는 유혹

— 李起台 지음



스타인터 내셔널과 베스텐북스 대표인 李起台(불어교육59-65) 동문이 제1세대 해외주재원 리포트를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

李동문은 고려원양어업 본사는 물론 해외주재원으로 마다가스칼, 가나, 스페인,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소상히 기록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산업 태동기였던 1960~70년대 산업 최일선에서 해외주재원으로 활약한 발자취와 당시 상황 등이 담겨있다. <베스텐북스刊·값15,000원>

■ 꿈, 비전 그리고 목표

— 鄭憲錫 지음



성신여대에서 30년간 경영학을 가르쳐온 鄭憲錫(농화학63-70) 교수가 학업과 취업에 고민이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 개인의 잠재능력을 찾아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

이 책은 ‘꿈, 비전 그리고 목표’, ‘꿈은 이루어진다’, ‘열등감의 극복’, ‘타님이 길다 한들’, ‘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길’, ‘행복으로의 길’의 6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사례와 일화를 인용해 이해를 도왔다.

열등감과 시련, 자신감 상실로 힘들어하는 젊은 독자들이 희망을 갖고 신선한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명경사刊·값14,000원>

■ 폭풍우 속의 동행

— 吳龜鎭 지음

한국문협·부산문협·부산시협



회원인 吳龜鎭(조선공학 65-69) 동문의 시집.

1998년에 ‘문예사조’의 시 부문으로 등단한 이후

자신만의 시 세계를 펼치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해온 吳동문의 네 번째 시집으로 선명한 언어와 깔끔한 문체를 가진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을 묘사한 서정성 짙은 시와 함께 주변 사람들과의 다정한 인간 관계를 그린 시, 외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사실들을 간결하게 서술한 시와 동서양의 차이점에 대해 견해를 펴려한 시들을 소개했다. <세종출판사刊·값8,000원>

■ 곁에 두고 싶은 책

— 朴聖姬 지음



35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아온 세명대 朴聖姬(가정관리 73-77 본보 논설위원)초빙교수가 세상

과 사람 사이에서 부침을 겪을 때마다 도움을 얻은 책 중에서 신중하게 추천 일흔여섯 권의 책들을 소개한 서평집.

朴동문은 평생 동안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데 길잡이로 삼을 만한 책,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그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책, 삶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저절로 손이 가는 책들을 소개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경제신문’에 동일한 타이틀로 연재했던 칼럼을 모아 정리하고 보충해 펴낸 이 책은 문학, 에세이부터 자서전, 경제경영, 자기계발, 여성관련 도서에 이르기까지 경계 없는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삶을 대하는 여러 각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민음안刊·값12,000원>

■ 국방정책론

— 韓庸燮 지음



국방대 韓庸燮(정치 74-78) 부총장이 30년간 연구해온 국방정책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책은 국가안보전략,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 국방정책 결정과정, 한반도 군사력 균형분석, 북한의 핵위협 억제, 한반도 위기시대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 전략기획과 전력기획, 국방기획관리제도, 자주국방과 한미동

공연

■ 남산오페라단 가을연주회

— 10월 26일 영산아트홀

서울 남산오페라단(단장 겸 예술총감독 朴圭坤 성악81-85)이 10월 2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영산아트홀에서 가을연주회-모차르트의 오페라 ‘휘가로의 결혼’ 하이라이트의 밤을 개최한다.



金鍾天(성악83-91) 동문이 음악감독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기획됐으며, 클래식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환경미화원 가족 1백명을 무료로 초청해 아름다운 곡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문의: 세광아트 717-7012>

■ 韓熙喆 피아노 독주회

— 10월 30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韓熙喆(기악84-88 인하대·세종대 감사)동문(사진)이 10월 30일 오후 8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미 국보 스텐 음대 대

학원,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韓동문은 이날 바흐, 베토벤, 쇼팽, 피아졸라, 리스트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金祐載 기타 독주회

— 10월 31일 금호아트홀



기타리스트 金祐載(기악 93-99 성남기타페스티벌 음 악 감 독) 동문(사진)이 10

월 31일 오후 8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기타플러스’ 두 번째 무대를 연다.

金동문은 이날 이탈리아 작곡가 겸 기타 연주자인 마우로 줄리아니의 대표적인 고전협주곡을 비롯해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로베르토 시에라의 ‘Triptico’를 국내 초연하고, 우리나라 작곡가 구본우 씨의 ‘Paradiso sconosciuto’를 세계 초연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맹, 국방인력제도, 국방과 국민경제, 무기체계의 획득정책,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전략적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개념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박영사刊·값30,000원>

■ 세기의 권력자들

— 金俊逢 지음



광운대 경영대학원장·인문사회과 학대학장·대학원장 등을 지낸 金俊逢(행정대원 79-85) 동문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조직적이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였던 인물들을 기술한 책.

중국, 이스라엘,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 로마, 러시아, 독일의 역사에서 행해진 권력 제로섬의 실체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3백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무상노동에 동원했던 진나라의 시황제, 개인의 이익을 국가 복리에 종속시켰던 스파르타의 억압, 31년 동안 집

권하였던 모택동 등의 구체적인 권력 남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대선에서 올바른 정신을 가진 모범적 시민을 선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 <이담북스刊·값15,000원>

■ 커뮤니케이션 통계분석론

— 權相禧 지음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權相禧(신문 81-85)교수가 성균관대 대학원 고급 통계분석 수업계획과 진

도에 맞춰 실제 사용한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커뮤니케이션 통계분석 교재.

이 책은 기초에서 실제로 통계분석의 원리와 리포팅 양식과 형식을 알려준다. 이 교재는 기본적인 통계공식을 바탕으로 자료 구조에 적절한 분석 방법 적용과, 분석 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식을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컴윈미디어刊·값25,000원>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2년 8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2. 6. 27~9. 20) · 일반 (2012. 6. 28~9. 20)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鄭八道 = 1백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 식 環院87 △강재희 미대84 △고희정 생활87 △구연찬 AMP36 △권오규 상대71 △권정신 ACAD2 △김국현 법대96 △김대호 공대68 △김덕현 공대72 △김명수 ACPM5 △김법성 의대78 △김성우 법대88 △김영문 문리64 △김영철 AMP35 △김용담 SGS15 △김은영 SPAR17 △김재우 자연69 △김정수 사회71 △김정수 AIP43 △김종웅 GLP19 △김중훈 법대98 △김학엽 수의75 △김홍국 공대84 △김홍빈 의대90 △노경상 AMP56 △민경환 인문91 △민병관 상대70 △민병주 AIP45 △박선미 의대84 △박유경 사회90 △박종득 ASP9 △박종현 법대90 △복진성 AIP35 △서의식 사대75 △서일홍 공대73 △소장중 AFB1 △송정근 공대76 △신찬수 의대81 △양창근 수의76 △양태희 AMP67 △오태식 공대90 △원성연 SGS20 △유종도 사대83 △윤국현 AMP6 △윤영인 공대80 △이계평 의대59 △이광호 문리68 △이국동 ALP6 △이남수 법대71 △이남준 ASP13 △이명준 의대83 △이병돈 법대73 △이상연 공대91 △이새나 미대88 △이성진 자연83 △이영근 공대72 △이인재 문리64 △이인재 법대73 △이재협 의대89 △이찬재 AIC6

△이창욱 자연80 △이혜승 의대93 △임관빈 AMP70 △전도영 공대80 △정대련 AIP7 △정현치 GLP20 △정흥기 공대76 △조귀장 법대86 △지성배 경영86 △진순오 AIP45 △진정훈 大院93 △차명진 사회79 △최병례 HPM21 △최인선 치대82 △최중익 環院97 △최현수 공대76 △한홍진 법대77 △허중식 ALP10 △홍영의 AMP26

(일반) △강신철 공대91 △구자관 ALP15 △권오주 ALP14 △김기준 공대57 △김상준 문리67 △김유정 保院97 △김의중 의대86 △김형아 GLP21 △남홍석 공대03 △동용국 保院92 △문순례 AMFR27 △박대영 사대80 △박만규 大院83 △박만순 문리69 △박세원 농대90 △서전석 공대77 △서정희 치대54 △서희란 생활83 △신연수 사회83 △신표근 문리75 △신필재 약대55 △안화주 경영82 △여강연 농대80 △유혜민 미대07 △이건수 간호72 △이광만 법대81 △이성호 AMP69 △이영식 자연80 △이영옥 공대83 △이인복 자연75 △이현주 사대90 △장세영 FIP8 △조기민 법대85 △진장수 법대86 △최동표 사대04 △최영근 농대03 △최홍석 공대98 △하승관 사대05 △한덕수 상대67 △홍순의 ALP15 △홍장숙 사대54 △황도생 사대64 △황해자 생활65

이 사

◆인문대 △강상진83 △김능구81

△김대환84 △김덕출81 △김동철78 △김병철76 △김선아93 △노 찬74 △문상원72 △박명식77 △손예철69 △손중호69 △유국환81 △육동인81 △윤상필84 △윤용복84 △윤호중81 △이강근81 △임미화83 △임윤택72 △전원배73 △한봉희77 △홍성범87 △홍성윤73 △황보성85

◆사회대 △강종표76 △권용발74 △김정우74 △김 영79 △김광재90 △김기식85 △김기준77 △김영희74 △김용균84 △김창범86 △김중환73 △남기섭76 △노형식90 △류성록82 △문도선83 △박 철81 △박민식84 △박재하77 △박종국73 △박홍배87 △박희영80 △방창식83 △상지원86 △서동영79 △서명국84 △손문호76 △송동섭81 △신철식73 △심일혁89 △오대영80 △유동근92 △유성열80 △이동훈74 △이성만75 △이재열80 △이홍엽91 △장경영92 △전성철81 △전홍찬79 △정봉교72 △정석구77 △정인익73 △주순식73 △주진혁77 △최금락76 △최익순73 △한용섭74 △한인구75 △홍석규75

◆자연대 △강병도82 △김규중72 △김진익84 △김현식91 △민영철74 △박송용74 △서재영83 △손병용68 △송환빈82 △윤재근84 △이덕희77 △이동환77 △이명웅77 △이은웅72 △이철의75 △장성기72 △조태진74 △최광원81 △최영욱84 △최윤경82 △최종권75 △최진우75

◆간호대 △이금문90 △이명란84 △이선자61 △조동란66 △홍정희86

◆경영대 △김근수77 △김선구73 △김중환92 △김홍섭79 △김확식76 △박기환69 △반용음77 △서정호88

△성열우77 △신용삼73 △유경연95 △이동호77 △이원열87 △이호선75 △임기찬90 △조현탁83 △진영근75 △차순관72 △최석원70 △추연우78 △한승희76 △황수연72

◆공대 △강경일75 △강구선63 △강명구89 △강상돈92 △강익철73 △강효순68 △강희신85 △곽병현67 △구창용60 △김 훈71 △김경배68 △김광옥66 △김남호70 △김덕재54 △김도심52 △김동성73 △김범석92 △김석주48 △김석홍81 △김성기80 △김성도75 △김성연71 △김성철80 △김수호76 △김연철67 △김영규76 △김영신89 △김용범70 △김인달70 △김인동80 △김인선65 △김재수77 △김정섭77 △김종원74 △김종의59 △김주홍47 △김진기87 △김태문70 △김태선93 △김학세65 △김현이77 △김홍균81 △김홍식76 △남장수64 △노승규82 △노태욱69 △문영학65 △문호지84 △박경배67 △박동서61 △박상봉87 △박상수59 △박상언71 △박성규57 △박신동65 △박영수77 △박용규58 △박용일62 △박의승73 △박재기52 △박재룡68 △박진수70 △박찬민57 △박찬백67 △박찬빈60 △박찬석92 △박대권55 △박현철85 △박홍준71 △박화규77 △배재흥70 △박명철79 △변순천85 △부정렬77 △서남규69 △서동식81 △서동원70 △서영수86 △서완수69 △서태석76 △설재훈74 △성기초51 △손석광75 △송배원75 △송창영68 △송대범85 △송효상71 △신건일63 △신동식51 △신상호76 △신영수74 △신종계73 △신철영70 △신홍현84 △안순신69 △양 갑68 △양기정67 △양배근82

△양운재69 △어성준67 △여인선75 △오세기64 △우상룡72 △우진태71 △원종환52 △윤세현79 △윤장현89 △윤종섭84 △이강우79 △이계수63 △이계환62 △이남진69 △이능규69 △이명호53 △이봉주67 △이상언81 △이상준76 △이상훈92 △이성규58 △이성원58 △이원도59 △이원세71 △이원우78 △이원표72 △이재형76 △이종남73 △이종호84 △이종화76 △이종훈55 △이주선64 △이중재64 △이중호70 △이지원81 △이찬홍74 △이춘성71 △이희성70 △이희승60 △임기석63 △전상백53 △정명식50 △정욱회52 △정종철72 △정태영75 △정한모71 △정현교75 △정현일60 △정형수59 △조장현64 △조택호61 △지성근71 △전창호89 △최규현90 △최상호64 △최완철69 △최재순90 △최재열69 △하규성76 △하준환51 △하태흙75 △한광석76 △한재성79 △허욱렬70 △현희현59 △홍보기89 △홍성일66 △홍호식69 △황 철71 △황석희87 △황일인59

◆농대 △강철기76 △곽유신82 △김갑철68 △김광호61 △김동태62 △김병운69 △김완기65 △김원보73 △김일종69 △김지훈87 △김풍진71 △노영성74 △리신호74 △맹을재83 △맹민종73 △문동준70 △박기전81 △박동선58 △박상용83 △박순흥85 △박창언80 △변상지74 △부경생60 △서광섭79 △서기호60 △서병륜69 △서원호74 △손환규64 △송경빈75 △신동현86 △신용석61 △심미옥86 △심용섭70 △여환명86 △염익환78 △오봉국48 △오세인55 △왕진무60 △유부열66 △유장열68 △윤동원79



2012 Korea Top Award
고객행복브랜드 대賞
결혼정보분야 1위

행복출발 The1
결혼, 행복한 1등 출발 - 결혼정보

결혼은 1등 으로
행복출발 하세요

결혼정보회사 행복출발
전국무료상담 1588-3883
www.theone.co.kr

15년 성혼의 달인들과
세계최고의 MBA출신들이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前 아나운서 최송현

- 01 국내최초 전문 특화 결혼정보
- 02 세계 최고 MBA (와튼 스쿨) 출신들
- 03 15년 노하우 성혼의 달인들
- 04 독보적인 글로벌 검증 시스템
- 05 완벽한 고객 최우선 서비스

△윤여두⁶⁷ △윤여성⁷⁶ △윤재호⁶⁹
△이광희⁸⁴ △이규승⁶⁷ △이규재⁵⁰
△이상결⁷⁹ △이상국⁷⁴ △이성호⁷¹
△이승일⁸⁵ △이원덕⁸⁰ △이임영⁸¹
△이장섭⁵² △이재기⁵³ △이재진⁶⁵
△이희석⁵⁷ △임석원⁹⁴ △임용택⁵⁴
△정복현⁷⁴ △정일성⁶² △정재용⁷⁹
△정주영⁸⁷ △정진구⁶⁵ △조국광⁷⁵
△조선종⁸⁴ △조재구⁸³ △최동하⁷¹
△최찬식⁵⁶ △한갑준⁵² △한정남⁶⁵
△현근택⁹⁰ △홍동선⁵⁶ △홍수명⁶⁸
△홍형홍⁶²

◆문리대 △강사육⁷⁰ △고영소⁵⁶
△권혁방⁶⁵ △김 욱⁶⁹ △김관식⁵⁶
△김대성⁶¹ △김상복⁵⁷ △김상진⁷¹
△김수진⁵⁷ △김용성⁶² △김재민⁶⁷
△김춘석⁶⁹ △김치수⁶⁰ △남광성⁶¹
△남영우⁶⁸ △류종택⁵⁶ △박용길⁶⁶
△박정무⁵⁹ △박하진⁶⁷ △박흥식⁶⁶
△방석기⁶² △배규한⁷⁰ △배성근⁵⁶
△석준형⁶⁷ △신상우⁶⁴ △안승원⁶⁸
△안취준⁶¹ △염경일⁶⁴ △염영진⁶³
△오완영⁵⁹ △오재희⁵³ △윤택상⁶⁸
△유보일⁶⁰ △유양수⁵⁷ △윤홍근⁶³
△이상원⁷¹ △이상직⁶⁶ △이성택⁵⁶
△이성우⁶³ △이용태⁵³ △이용태⁶³
△이용화⁵³ △이원영⁶⁹ △이원홍⁵²
△이정길⁵⁹ △이정남⁵¹ △이정수⁵⁹
△이종현⁶² △이종희⁵⁴ △이형구⁵⁹
△임병석⁵⁴ △임형택⁶² △장부일⁶⁹
△장영수⁶³ △전종구⁷⁰ △정규수⁶³
△정기호⁷⁰ △정소성⁶⁴ △조완규⁴⁸
△조창화⁵⁷ △진홍순⁷⁰ △채영수⁶⁸
△최 욱⁶⁹ △표완수⁶⁷ △하영식⁵⁸
△한영우⁵⁷ △한우석⁵¹ △허운욱⁵⁷
△홍두표⁵⁵ △홍치모⁵² △황인광⁶³

◆미대 △강신욱⁸⁶ △김미혜⁷⁸
△김민기⁶⁹ △민철홍⁵⁴ △성기점⁵⁸
△손희옥⁶⁸ △오영희⁷¹ △윤명로⁵⁶
△이종목⁷⁶ △전민숙⁷⁴ △정종해⁶⁷
△한주연⁹⁰ △현지연⁹³

◆법대 △강 훈⁷² △강대석⁶⁷
△강동세⁷⁷ △강병섭⁶⁸ △강석훈⁸²
△강승준⁸⁵ △강신원⁷² △강용식⁵⁸
△강희철⁸¹ △고석홍⁸² △고흥달⁶⁸
△구본민⁷⁷ △권영국⁶⁹ △권은민⁸²
△김관재⁷¹ △김국현⁹⁶ △김규복⁶⁹
△김동원⁵² △김병국⁶⁶ △김봉학⁷⁰
△김부찬⁷⁴ △김상균⁷⁷ △김성수⁶⁸
△김수철⁷¹ △김신택⁵⁷ △김연곤⁸⁵
△김영우⁵⁶ △김영학⁸³ △김완섭⁶⁵
△김용환⁶⁰ △김유동⁸⁶ △김윤성⁷⁶
△김정학⁷¹ △김정후⁵⁷ △김종일⁵²
△김종훈⁹⁸ △김준규⁷⁵ △김준희⁷⁶
△김태병⁸⁵ △김호웅⁷² △김희주⁸⁴
△나종태⁷¹ △노경국⁰² △류기홍⁵⁸
△류진열⁷² △민수광⁶⁰ △박 만⁷⁰
△박상일⁷⁷ △박성기⁷¹ △박성진⁸⁴
△박윤훈⁵⁵ △박장우⁶⁶ △박종성⁷³
△박준서⁵⁸ △박창현⁷³ △박태훈⁶⁶
△박해봉⁸³ △박홍우⁷² △박휴상⁶⁵
△변동걸⁶⁶ △변학남⁵² △서정석⁷⁷
△서정진⁵⁸ △성지용⁸² △송병대⁶⁷
△송상규⁸⁴ △송창현⁶⁹ △신인식⁷⁴
△신일규⁶⁹ △신현일⁷⁷ △심우영⁵⁹
△안상수⁶⁴ △양현주⁸¹ △양희영⁵²
△오지철⁶⁹ △우성만⁷⁶ △유 훈⁴⁹
△유남석⁷⁶ △유병규⁸³ △유병환⁷⁷
△유재선⁶³ △유종걸⁶⁴ △유홍종⁵⁷
△윤교중⁶⁵ △윤덕순⁵⁹ △윤신승⁸⁸
△윤장석⁸⁹ △윤호일⁶¹ △윤홍근⁷⁹

△이건종⁷² △이규오⁴³ △이동명⁷⁵
△이무룡⁶¹ △이무상⁷⁸ △이사철⁷¹
△이상국⁹⁰ △이상진⁷⁰ △이상환⁷⁸
△이선우⁶¹ △이세형⁶⁸ △이수영⁷⁴
△이승철⁸¹ △이용우⁹² △이원호⁶¹
△이은종⁷⁷ △이재근⁸² △이재성⁶⁹
△이주성⁷⁶ △이창복⁷⁴ △이춘삼⁶⁷
△이충범⁷⁸ △이태운⁶⁸ △이현욱⁷⁸
△임내현⁷¹ △임한흠⁷³ △전 광⁶³
△전용학⁷³ △전응진⁴⁹ △전창영⁷⁴
△정경택⁷⁰ △정구영⁵⁷ △정택장⁵⁹
△정세용⁷⁴ △정해주⁶³ △정호영⁶⁶
△제차룡⁶⁰ △조장혁⁹⁰ △조중환⁶⁵
△조철호⁹¹ △조해근⁷⁸ △조해현⁸¹
△주우식⁷⁸ △차한성⁷² △최병덕⁷²
△최병륜⁵⁶ △최석원⁵² △최순철⁵⁵
△최신석⁵⁹ △최연희⁶⁴ △최영도⁵⁷
△최완주⁷⁷ △최정현⁷⁵ △한 민⁷⁷
△한광세⁶⁰ △현경대⁶⁰ △홍광식⁶⁷
△홍진태⁵² △황영목⁷⁰ △황영선⁵⁵
△황영하⁵⁸

◆사대 △강경돈⁷⁰ △강영삼⁵⁹
△고영신⁷³ △곽봉조⁷⁰ △국해웅⁶³
△권 승⁷⁶ △김상구⁶⁰ △김성대⁵⁹
△김영심⁸² △김용균⁶⁵ △김용진⁷⁵
△김원용⁷⁴ △김재혁⁷³ △김재호⁵³
△김점술⁸² △김지은⁹² △김찬근⁵⁴
△김천수⁵⁸ △김학전⁵⁹ △류근찬⁶⁸
△박병기⁸¹ △박영태⁶⁷ △박익두⁶⁴
△박재공⁶² △박홍일⁶⁰ △변범식⁸⁶
△석용경⁷⁷ △설동근⁶⁸ △송장섭⁶⁹
△신차근⁶⁸ △여태철⁸⁴ △오창훈⁸³
△위종진⁹¹ △윤익모⁶² △이광범⁹²
△이동호⁵⁹ △이상락⁶⁷ △이선준⁴⁸
△이성영⁸¹ △이언숙⁸⁹ △이원강⁵⁷
△이원순⁴⁵ △이재민⁷⁹ △이재혁⁶³
△이정식⁷² △이준동⁶⁰ △이진구⁷¹
△이장득⁷¹ △이환기⁸¹ △임광수⁶⁸
△장종택⁵⁵ △장춘화⁸³ △전택수⁷¹
△정공수⁶⁹ △정광삼⁵⁸ △정기언⁷²
△정상관⁷² △정용길⁷⁷ △정재정⁷⁰
△정장석⁷³ △정철수⁶⁸ △정희성⁸²
△조용복⁵⁵ △조인형⁶⁰ △최동환⁷²
△최성재⁸⁵ △최영삼⁵⁶ △최은식⁶³
△최준범⁶⁰ △하현준⁷⁸ △한도연⁴⁹
△형남규⁶⁷ △홍석영⁸⁵

◆상대 △강승구⁶⁵ △고두모⁵⁷
△구선회⁵⁶ △권오규⁷¹ △권태인⁴⁶
△기병대⁵³ △김덕기⁵² △김만경⁵³
△김명수⁷³ △김명준⁶² △김병식⁶⁸
△김상희⁶⁶ △김영섭⁶⁶ △김원길⁶¹
△김윤환⁶⁷ △김창달⁵³ △김창수⁶⁸
△김하두⁶⁴ △김항덕⁵⁹ △나진원⁶⁷
△남영태⁶⁵ △문영도⁵⁰ △박성석⁶¹
△박종민⁶⁴ △배경일⁶⁹ △배정운⁵⁹
△배철호⁶⁸ △백정기⁷¹ △변병주⁶⁰
△서정도⁶⁶ △서주성⁴⁴ △서충석⁷¹
△송국현⁵⁶ △송인덕⁶² △신승철⁵⁹
△신정철⁶³ △안재전⁵⁶ △양승우⁶⁸
△우두현⁶¹ △우완식⁵⁷ △우찬목⁵⁵
△유석홍⁶¹ △윤석현⁶⁷ △윤종현⁴⁴
△이갑현⁶¹ △이계안⁷¹ △이광수⁵⁰
△이구수⁵⁷ △이동혁⁶⁵ △이상근⁵³
△이상윤⁶² △이승웅⁶⁰ △이일훈⁵⁵
△이태형⁵⁹ △이태환⁵⁸ △장병구⁶⁴
△장종록⁵⁷ △전문준⁶⁴ △정재택⁵⁸
△정태욱⁶² △정태웅⁶⁷ △정형배⁶⁴
△조상호⁶⁹ △조영삼⁷¹ △조중현⁶²
△조창제⁵⁷ △차태균⁷¹ △최도성⁷⁰
△최수일⁵⁵ △현정택⁶⁷ △홍영기⁵⁷
△황 훈⁶⁸

◆생활대 △김성은⁸³ △박지영⁸⁷
△여의주⁸² △정영진⁶⁸ △조혜옥⁵⁹
△황수현⁰⁴

◆수의대 △김계방⁶¹ △김인호⁵³
△김진구⁶¹ △나종극⁵⁴ △박성권⁷⁴
△박전교⁷⁴ △오효성⁷⁷ △이성모⁷⁸
△이수창⁶¹ △정원공⁵⁰ △조후익⁵⁹
△주현식⁷³ △하태은⁸⁰

◆악대 △김미희⁸⁴ △김상조⁵⁴
△김선중⁶¹ △김성오⁸¹ △김재환⁶⁸
△노동철⁷⁸ △박시우⁶⁹ △배영일⁶⁰
△손인자⁶⁹ △심우원⁷² △안병욱⁶⁸
△우중균⁶¹ △원희복⁷³ △윤병길⁷¹
△이선구⁹⁰ △임종석⁷⁸ △장석윤⁷⁹
△정현경⁸³ △정희용⁷⁶ △조영준⁶⁹
△조용현⁷⁴ △조정식⁶² △조중현⁶⁸
△주승재⁸⁶ △지현석⁵⁶ △최신식⁶⁴
△최진근⁷⁷ △허 상⁵⁸ △홍성한⁷⁶

◆음대 △김순화⁷⁰ △김인규⁶⁵
△문정원⁸⁸ △민미란⁷³ △박세나⁹⁰
△손국임⁶⁴ △신정혜⁷⁷ △심선화⁷²
△유행웅⁶⁰ △윤이나⁸⁶ △이명희⁶⁸
△이선이⁸⁴ △이신화⁶¹ △이영심⁷⁸
△이재숙⁵⁹ △이준복⁶⁸ △이준성⁸¹
△전신주⁶⁷ △정복주⁶⁶ △조창연⁶⁶
△차정현⁶⁷ △최승준⁶⁵ △황은준⁸⁷

◆의대 △강승백⁸² △강재훈⁸⁸
△강형용⁴⁴ △고건성⁶⁷ △김광희⁵⁵
△김규한⁷⁶ △김근우⁶¹ △김명석⁶²
△김명호⁶⁸ △김상은⁷⁷ △김성오⁸⁷
△김영균⁴³ △김용봉⁷⁰ △김인호⁷¹

△김재윤⁷⁹ △김정식⁶⁸ △김한수⁸²
△김환규⁷⁸ △남도현⁸⁴ △맹국영⁶⁸
△목정은⁶⁰ △문대혁⁷⁶ △문태준⁴⁴
△박경환⁷¹ △박영태⁷⁰ △박종명⁶⁹
△박주배⁶⁸ △백태진⁷⁴ △서동희⁸⁸
△선우대환⁷¹ △성상현⁷³ △손봉기⁷³
△손정민⁸⁷ △양성범⁷⁵ △양영식⁶⁶
△염명걸⁷⁴ △오경균⁶⁷ △오승환⁵⁶
△유세화⁶⁵ △유영성⁷⁰ △유재란⁸⁴
△이계평⁵⁹ △이관희⁷⁵ △이근장⁹⁰
△이병훈⁶⁰ △이상근⁷³ △이성규⁷²
△이승덕⁸³ △이승규⁶⁷ △이영돈⁷³
△이의용⁷² △이정길⁶³ △이종호⁸¹
△이충원⁷⁶ △이태연⁹² △이현구⁷⁴
△임대정⁹¹ △임태환⁷⁰ △전형식⁸¹
△정 민⁷⁵ △정경태⁵³ △정동철⁵⁴
△정두용⁷³ △정유조⁸⁵ △정을삼⁶⁰
△조경환⁵² △최복식⁸⁴ △최용석⁸²
△하재인⁴⁴ △한규섭⁷² △한덕중⁶⁹
△허준평⁷⁰ △홍기정⁸¹ △홍성출⁸⁹
△홍순우⁸⁵ △홍영식⁶¹

◆치대 △권오균⁷¹ △김 일⁵¹
△김능세⁷⁰ △김석연⁶⁸ △김윤이⁷³
△김장현⁷⁷ △김정국⁸³ △김종태⁷⁰
△김진홍⁷⁸ △김현제⁸⁷ △김현태⁷⁶
△김홍석⁵⁷ △남용욱⁵¹ △남태우⁷⁶
△목성규⁸¹ △문형주⁷⁹ △박기성⁵⁵
△박수훈⁷⁹ △박순억⁶⁶ △박연전⁷²
△박용한⁷⁸ △박우찬⁶⁸ △박홍규⁷¹
△방수남⁶² △배현성⁶⁴ △백순지⁶³
△서성구⁷⁴ △서학원⁷⁴ △손영경⁸⁶

△송명욱⁸⁶ △송재용⁸² △신동인⁷⁶
△안건모⁸³ △양일수⁷³ △양재호⁶⁴
△양재희⁷⁵ △유병도⁵⁶ △유태영⁶³
△윤귀성⁸⁰ △유희영⁶² △이동약⁷⁰
△이만선⁶⁶ △이만희⁸³ △이복상⁸¹
△이봉재⁵⁶ △이상표⁷⁷ △이성출⁷⁰
△이승종⁶⁹ △이윤상⁵⁹ △이재봉⁷⁰
△이종혁⁷⁴ △이종호⁷⁹ △이진걸⁷⁷
△이창우⁷⁵ △이형규⁵⁷ △이호정⁸⁶
△임심수⁶⁰ △정관서⁷⁹ △정대현⁶⁹
△정재영⁷⁰ △정철표⁷⁴ △정호길⁷¹
△조인호⁷⁰ △조항자⁶⁴ △진기열⁷⁷
△진윤수⁸⁰ △최순철⁷³ △최인선⁸²
△허재식⁹³ △홍정임⁸⁷ △황의강⁶¹

◆대학원 △기순일⁹⁴ △권호기⁸³
△김경남⁸⁴ △김경진⁸⁴ △김문한⁷⁹
△김석근⁸¹ △김석용⁸¹ △김승호⁸³
△나병만⁷⁷ △문형근⁷⁹ △박영득⁸²
△서상혁⁷⁹ △송강영⁹¹ △송현호⁸²
△신동수⁹² △신호수⁸⁵ △심정보⁸³
△원상봉⁸³ △유장훈⁸⁶ △이범수⁸⁵
△이병갑⁷⁵ △이시운⁸¹ △이재봉⁷⁹
△이효수⁸⁴ △임유택⁸⁷ △전병서⁸⁴
△전용기⁸² △정기화⁷¹ △정병희⁵²
△최계운⁸² △최원희⁸¹ △황인자⁷⁸

◆경대원 △김일란⁶⁹ △김한준⁸⁹
△임인규⁸⁸

◆교대원 △송향섭⁶⁴ △장석민⁷⁰

◆보대원 △구성희⁶⁷ △김윤신⁷²
△박희서⁷⁷ △정상호⁹⁹ △정진택⁸⁴
△최영아⁷⁴ △최진석⁸⁶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비즈니스
인천항이 약속드립니다



1883년, 인천항은 조선의 문호를 열었습니다!



2012년, 인천항이 대한민국의 물류강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INCHEON PORT

for your success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인천항!
물류의 중심을 향한 인천항의 발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비즈니스의 최적지-인천항
인천항은 중국 주요항만과 최단거리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유비쿼터스 항만-인천항
인천항은 스마트폰(m.iplus.co.kr)을 통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 선박 및 화물정보 등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복합물류의 요람-인천항
인천항은 항만과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전국으로 뻗은
도로와 철도를 이용, 국제복합운송이 가능합니다.

성과와 기회의 시작-인천항
인천항은 2014년 인천신항과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오픈할 예정이며, 조성중인 배후물류단지가 완공되면,
국제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
TEL. 032-890-8000 www.icpa.or.kr

◆사대원 △석용진65 △이원형64
△정경식63
◆신대원 △김우룡71 △조용직70
◆행대원 △강윤원77 △김익영68
△남상우73 △노일숙79 △이경훈76
△장성호85 △장준규65 △최순현73
◆현대원 △권 완76 △김제성78
△박종일84 △박형석74 △정병환69
◆AMP △강성숙69 △강수아70
△고시목8 △권오석61 △김세래46
△김영만65 △김영환34 △김진섭9
△김판진53 △노연웅48 △박인상28
△서종덕12 △석 강61 △성승모1
△손병준68 △송학성63 △신동대35
△신재덕49 △심계진36 △안정화65
△오병제21 △우정옥37 △유병운23
△유시수25 △유재열35 △유준근4
△유한섭23 △육신학57 △윤수복63
△윤열현68 △윤영호11 △윤종호48
△이규식54 △이병구16 △이병성2
△이원구50 △이용표36 △이한규23
△이현구52 △전용배57 △전현찬44
△정영대48 △조형수58 △진옥윤32
△최호경28 △하정길6 △한종희28
△허택령2 △황복현45 △황의영59
◆AIP △고희수25 △권영렬19
△김영대44 △김장근15 △김정수43
△김휘중41 △민병주45 △박몽식16
△박무광43 △박양신20 △박영식28
△박종원27 △박종호9 △서영복19
△신용기9 △심영복38 △유길상9
△윤여순27 △이덕영23 △이상길41
△이상희15 △이선재42 △이의현20
△전이현42 △정봉성29 △주영현12
△최순규36 △최원태26 △최창호7
△추현식32 △홍재성40 △황이남22
◆ACAD △권도중49 △권영호60
△권정신2 △김경래18 △김광철47
△김우연14 △김철환46 △박남신70
△박영규40 △박성득20 △박인복47
△방동식27 △서정만18 △안희수11
△이강국63 △이상영40 △이재복21
△이진영56 △이희수49 △전병순42
△정송학54 △조건창49 △조주태14
△최수근51 △최철규68 △한성열67
◆ABP △김성일15 △김영근15
△박대영30 △심형보16 △양종하19
△이계용2 △이상래24 △이관철3
◆SGS △김봉규25 △김수근2
△김희철12 △박종인5 △안기석10
△정병재5 △정휴병15 △조승연25
△황용연2
◆APC △이상진9 △조갑환9
◆HPM △권기진8 △김민규23
△김현수2 △김홍구12 △노동일7
△방금석2 △배영봉14 △임신흠14
△이규진14 △이석기14 △이정희12
△이천수9 △이충섭8 △전성혁13
△정호용8 △최병례21 △최병용9
△최종환10 △한훈섭10
◆AMPP △나종팔6 △송실광7
△이귀복5 △최종식6 △하영수2
◆AIC △김동현25 △김운식29
△김정구3 △김형준24 △박종렬3
△신철화22 △웅상순7 △이경호7
△이인기11 △이정재2 △임봉순15
◆AFB △곽 후10 △김경일6
△김관택10 △양근영10 △이동락1
△이영두9 △이화식9 △장세영8
△정일진10 △조창섭10
◆AMPFRI △강동원27 △강태호22

△김경호15 △김정훈1 △이병윤26
△임한택6 △한봉수9
◆ACPM △김기식6 △김승택6
△김재호6 △김정식3 △남관우5
△우순곤7 △이정현5 △정지호1
△진성의4 △하대정5 △한남희5
◆FIP △우영대7
◆GLP △강병섭21 △권덕수15
△김강호4 △김경식2 △김영숙16
△김용태17 △김창송21 △김형중17
△류명선21 △박영식18 △서승욱19
△양재길5 △윤경상22 △윤여표11
△이동진16 △이동향9 △이용섭18
△이원욱11 △전인해14 △정해연17
△차화철12
◆ALP △권동환2 △김경일3
△백정기6 △소진세12 △손용근6
△신영숙8 △이국동6 △황은연12
◆SPARC △김달수1 △김윤장11
△김인환2 △김창균18 △김정자13
△백인호18 △서영출1 △신진문12
△오현규18 △이덕록7 △이영환16
△장재진2 △장효상11 △전용갑14
△정삼진18 △최동관19 △허상록11
△황인선15
◆AFP △이창식6 △정일채8
△조원국5
◆ASP △김종배11 △민병렬13
△박종득9 △유성걸7 △채수철15
◆BCP △강인기3 △윤경주4

일 반

◆인문대 △김정호90 △노민혜08
△심윤남82 △이상근97 △장대철84
△정준모89 △정지윤06 △최상이99
△최완석98 △황진상98
◆사회대 △강지원07 △김슬기06
△김연광80 △김응서07 △김정환90
△김지혜04 △남정훈04 △문준석92
△방동욱00 △송인권72 △양제열02
△이민호84 △이승호05 △임일섭83
△전주현90 △정용화78 △최문성04
◆자연대 △김경윤88 △김광영86
△김광우05 △김민수03 △김태윤05
△노주철07 △류승호07 △문종섭77
△박대열68 △박지훈06 △안병환83
△윤상훈05 △이동우08 △이미선08
△이지희84 △이창현03 △임병호05
△조준형03 △주성재08 △최인호08
◆간호대 △곽월희74 △김기자56
△김선영76 △이순임75 △전귀늬83
△홍여신51
◆경영대 △김남식84 △김종우83
△김진섭85 △박병선98 △박주선86
△배성은87 △안남기87 △이현우83
△임성균77 △장호준01 △최광전06
◆공대 △강경민01 △강인구73
△강장범08 △고승구76 △고정민06
△곽두영05 △구정진02 △권기동63
△권동현08 △권오동69 △김경원01
△김규은48 △김도원92 △김상원94
△김수광57 △김용백61 △김유희57
△김정근60 △김정일86 △김종열78
△김주민91 △김주호52 △김창수58
△김동호70 △류기수86 △류철호92
△문준영06 △박경수76 △박봉영71
△박정대91 △방석영08 △배오섭72
△백봉근50 △백영학49 △백창기02
△손진호06 △송재학05 △송정우08
△송철상61 △심훈섭05 △안재현06

△안정옥02 △염규섭56 △염희택46
△오효석74 △유심덕61 △유태용50
△윤정복01 △윤희돈94 △이광복67
△이근환05 △이동욱79 △이승욱56
△이원모00 △이재준03 △이종수82
△이창민02 △이희영76 △임달연48
△임형준04 △장학순46 △전영동05
△정동섭64 △정병호05 △정상구73
△정재준90 △정충길70 △정치권60
△조대현81 △조수나07 △조승제56
△조정상94 △차석주81 △최동석98
△최명진08 △최병일86 △최성범05
△최인영63 △최호병60 △최희정61
△편도권54 △한보혁06 △한정빈63
△홍훈기00 △황준기67 △황호남67
◆농대 △강원봉77 △김갑균65
△김경환05 △김남훈58 △김민지08
△김영각49 △김영길53 △김영달56
△김영철59 △김재웅63 △김종운82
△김종철86 △김태규61 △김한석66
△김형달55 △김희국72 △노규식76
△류운형71 △민선홍58 △박관식54
△박석규48 △박창용55 △박태식68
△변양석59 △서완수58 △서정연82
△서정혁03 △송환창46 △양승엽52
△양종성57 △오무영55 △오영택87
△오영훈73 △우창병66 △원하연64
△유성곤63 △윤종선84 △이규형50
△이길상06 △이동구66 △이동열01
△이상욱56 △이원재80 △이종현80
△이종희86 △정돈철68 △정준희57
△조준기54 △최태진46 △태용문82
△하현팔68 △한기학52 △한정수51
△한태수65 △함영진72 △허삼남68
△황재우57
◆문리대 △곽영훈60 △구본룡69
△권순식65 △기우탁57 △김남진59
△김동진62 △김동진63 △김무창61
△김용달57 △김홍석45 △변광수65
△서정욱60 △신원선62 △신준근51
△신효순61 △심사수54 △안상환62
△양승영57 △유준재61 △유희형60
△윤홍로62 △이덕주66 △이민성54
△이상근59 △이선숙69 △이용길62
△이정복51 △이종무58 △이희택66
△전만수55 △조봉계61 △천병희56
△최규봉53 △최동진54 △황재운53
◆미대 △김용진79 △김지인07
△박혜정67 △서주희89 △손복희67
△신현경79 △윤옥진64 △이준환90
△장상의59 △정혜인08 △조형석05
△황인혜65
◆법대 △강군우67 △곽종훈71
△김경룡68 △김규연61 △김남수64
△김동익53 △김상구55 △김세돈72
△김소연04 △김양일61 △김영근57
△김원철66 △김정철54 △김정준02
△김종성67 △김종정57 △김종양65
△김철진50 △김준봉44 △김해영83
△남기룡56 △노창호54 △문상일84
△박상곤60 △박상길82 △박연주99
△박영하71 △박재완84 △박재태81
△배화승60 △서원대67 △신효성83
△안덕호87 △안채연03 △유병순55
△이권형00 △이보미07 △이성갑55
△이용남59 △이용우60 △이유진06
△이정렬96 △장순욱84 △정만조55
△정수영53 △정태용95 △조봉근58
△조왕제55 △조주운56 △최상태58
△최영홍72 △최종립54 △한수상63
△허지승07 △황선표59

◆사대 △김관섭79 △김영석64
△김완복76 △김은재45 △김재철71
△김주경55 △김진철68 △김태영60
△김필수57 △김현욱89 △김혜정85
△김효진85 △남유선04 △노희정06
△민영업55 △박대영80 △박영배54
△박종대51 △박종서57 △송용기69
△신각범54 △신상인03 △안운신55
△염도균59 △유봉호48 △유자효68
△이길오73 △이길자63 △이시정54
△이윤하63 △이재만52 △이제용60
△이현복58 △장보성86 △정근훈49
△정찬식65 △정희수49 △조선형59
△주경식68 △채영자61 △전낙경51
△한기선71 △한창림59 △한희숙82
△허현도52 △홍창숙54 △황광수56
△황성현81
◆상대 △강정구61 △강종우62
△고승현68 △구자홍68 △권태명58
△권혁조53 △김규식54 △김두산57
△김영하61 △김용민70 △김용은53
△김윤재53 △김진주60 △김형주51
△김홍배63 △노병태61 △민병태58
△박영주59 △송정위60 △송주식46
△신동현56 △염재현55 △위봉택62
△유재윤68 △윤상규57 △이동원51
△이동재54 △이영희67 △이재택71
△이정권57 △이태종50 △이해웅55
△정기완52 △정덕화56 △정문화71
△정호용52 △조성일62 △최병로49
△최준환66
◆생활대 △김동연06 △김옥경76
△류국영84 △안수빈08 △이소영08
△이재우76 △조혜자60
◆수의대 △김경휘56 △김명석08
△김영목51 △김준삼55 △김진영60
△조기형49 △조희택52 △홍소근01
◆약대 △김원선54 △김장숙58
△김태윤55 △문창규59 △박영선50
△배옥남95 △배종철69 △송희성60
△이상희62 △이정자60 △이훈자56
△정순간58 △정환수51 △조윤욱85
△황봉자61
◆음대 △강미증73 △김금수76
△김기홍80 △김난아91 △김소연94
△김신혜06 △박수전71 △박정자60
△서윤진94 △서은령80 △유지선08
△윤기숙82 △이민나00 △이정현00
△이정화89 △정상열81 △조대현97
△조현식07 △최영택74
◆의대 △강동완08 △구본희54
△국형철76 △김기범94 △김득구50
△김수경81 △김희경08 △문예지08
△박은주09 △박현경07 △배현미06
△서동엽68 △서정기67 △송민준57
△위정봉56 △유명철61 △유장희62
△정용화56 △정재면83 △정항보81
△조관재08 △진정욱93 △최승호08
△최영호86 △최충신61 △하제철08
△홍정룡69
◆치대 △강정규58 △김선일58
△김우성62 △김응만81 △김종화99
△김주관66 △김철위57 △김평일72
△김효순68 △박승오62 △박용세60
△송광수59 △안병관52 △안순찬83
△우원희73 △윤훈용53 △이경모76
△이상대70 △이영훈78 △이장훈57
△이화준83 △임광수60 △임형순63
△정인환60 △한충일78
◆대학원 △김선대84 △김우식66
△김현택82 △박용희62 △손정모83

△이수형78 △이은성83 △이정도67
△이종규88 △최천석77
◆경대원 △박영희90 △신인철68
◆교대원 △심수정71
◆국대원 △강상준02
◆법대원 △문민영03 △민창욱03
△장준혁03
◆보대원 △신금호72 △여현태65
△조준국84 △최용아67
◆행대원 △김재윤83 △윤사환75
△이대복77 △이원기67 △이윤빈08
◆현대원 △윤진수96 △이종현02
△이춘택71
◆AMP △강은채44 △고희선41
△권교택58 △권국주38 △김석중63
△김성환25 △김용환72 △김정식39
△류동현57 △박근학51 △박승준59
△박원식66 △신문범23 △신상길18
△오동빈22 △우태명5 △이상택40
△이연창72 △이종학13 △이태호20
△임종아55 △정상봉24 △정용화60
△전광찬28 △최병면41 △하용득71
△홍종대4 △황학수27
◆AIP △김정만41 △김춘진14
△박지홍46 △신길웅10 △이은택6
△이정열46 △이중광11 △장희천20
△정진욱34 △조태웅18 △진영환9
△채대석15 △최용길22 △허정수46
△황구연88
◆ACAD △고재정30 △권명주56
△문동신55 △서삼석66 △심재금73
△오복용51 △오시철7 △유낙준45
△이승복73 △지태욱20 △채명기66
◆ABP △김원태5 △박길태11
△백형욱36 △신민섭4 △오숙희27
△허 영14 △황승환30
◆SGS △김관욱18 △김명수2
△김재경1 △유광수20 △황선주27
◆APC △이우용3
◆HPM △김남수14 △김상용12
△배금자24 △조동순27 △조용선12
◆AIC △구관서28 △김택근13
△남호연4 △왕진원11 △이종대18
◆AFB △안순율8 △이광연9
△최동기9 △홍경래11
◆AMPFRI △고원선26
◆ACPM △김태완7 △조종수1
◆FIP △황국현4
◆GLP △권갑현18 △김미근23
△김용직15 △김태형9 △김형아21
△신태호18 △허국중3
◆ALP △김광주2 △노연길10
△박진현7 △이범주14 △최애영14
◆SPARC △최평규4
◆AFP △이동영9
◆ASP △김영화21 △조현익12
◆IFP △조용우4
◆BCP △박정수3

분 담 금

◆인도네시아지부 1,135,500원

8 월 계 : 34,950,000원
평 생 회 비 : 49,200,000원
입 회 비 : 890,000원
총 계 : 897,864,411원

VoLTE도 역시 LG

LG optimus G



LG optimus Vu:II



LG optimus

• LG 옵티머스 G는 10월 중 VoLTE 서비스 지원 예정

꿈을 키우는 세상™



www.kyobobook.co.kr